

2015
ANNUAL REPORT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2015
ANNUAL REPORT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CONTENTS

-
- 04 발간사
 - 06 연혁
 - 08 중진공 비전, 전략 체계
 - 09 중진공 주요 사업
 - 10 경제동향과 중소기업동향
 - 12 2015 하이라이트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 18 2015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 20 기업진단
- 22 정책용자
- 56 마케팅·글로벌화
- 72 인력양성
- 83 기술컨설팅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 88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 93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 102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 방향

부록

- 10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 111 2015년 발간간행물
- 112 2015년 주요행사
- 113 조직도
- 114 운영위원 및 임원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Best Partner가 되겠습니다!



2015년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메르스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참으로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정부 정책 효과로 성장·고용 등 주요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이 성장모멘텀 확산을 제약했던 한 해였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메르스 지원과 추경을 포함한 정책자금 전액 집행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정책자금 신청방식을 온라인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상시접수 방식으로 개선하여 조기마감을 해소하였고,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재창업자금(700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전용자금(300억원)도 신설하여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이 누적가입자 10,123명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내일채움공제사업 출범 2년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사업에 있어서는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대형유통망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진공은 사업·기관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성과를 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용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출증대·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전용자금 신설과 한·중 FTA 취약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정책용자를 공급하고, 서류간소화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자금집행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협업을 통한 수출유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과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유망제품의 수출 활성화 지원 및 FTA 등 환경변화에 따른 내수기업의 신형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창업활성화 지원부터 핵심인력 장기재직유도까지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문기술경력 보유자 선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인력유입 지원사업의 취업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점 추진 목표는 '고용'과 '수출'입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중진공 임직원들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BEST PARTNER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중진공의 행보에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5. 이사장 

HISTORY

1979. 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기금 설치(1978.12)

1982. 10.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지역연수원 개원 : 호남(2001.9),
대구·경북(2003.11), 부산·경남(2004.10)

1985. 2.

국내 지역본·지부 설치

16개 지역본부, 15개 지부(2013.2 현재)

1989. 9.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수행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1993. 7.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 실시**

1998. 7.

**IMF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직접대출 전면실시**

1998. 9.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BI 설치**

주요 11개국 17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운영

2002. 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 통합**

기금명칭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006. 9.

**무역조정
사업전환지원센터 개소(2007.4)**

2008. 6.

**정책융자 및
해외마케팅지원창구 단일화**

산기반자금 및 국내수출지원업무 인수,
4개 해외사무소 폐쇄

2009. 1.

기금명칭 변경

기금명칭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약칭 : 중진기금)」

2009.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2011. 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2012. 1.

청년창업센터 개소

18개 지역본부에 운영(2014.12 현재)

2013. 12.

“해외유통망진출지원센터” 설치

미국 뉴저지 1개소

2014. 7.

본사 지방이전 완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2014. 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금 설치(2014.1)

2014. 10.

글로벌리더십 연수원 개원

2014. 11.

카자흐스탄 글로벌 BI 개소

2015.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력양성,
컨설팅 사업 인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기재부 공운위 의결(2014.12.23)



중진공 비전, 전략체계



중진공의 주요 사업



경제동향

2015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6% 성장하였다. 이는 민간과 정부 소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건설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이다. 실질 국민총소득 성장률(6.5%)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익이 이익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2.6%)을 크게 상회하였다. 수출(5,320억달러)은 대부분의 업종 및 지역 전반에서 부진하였고, 수입(4,398.5억달러)의 경우 자본재 및 소비재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원자재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두 자리 수 감소하였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체 취업자는 전년대비 33만 7천명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만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0.1%p 상승한 3.6%를 기록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48.5%로 전년대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단순노무 종사자의 증가율(3.9%)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40대는 동일하였으나, 그 외의 연령계층에서는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었다. 생산자 물가는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25년 만에 사상최대로 하락했다. 생산자 물가는 통상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활동별 성장률(실질) (%)					
국내총생산(GDP)	3.7	2.3	2.9	3.3	2.6
국민총소득(GNI)	1.5	2.7	3.7	3.4	6.5
수출동향 (억달러, %)					
수출(FOB) (증감률)	5,552.1 (19.0)	5478.7 (Δ1.3)	5596.3 (2.1)	5726.6 (2.3)	5,320.0 (Δ7.1)
수입(CIF) (증감률)	5,244.1 (23.3)	5195.8 (Δ0.9)	5155.8 (Δ0.8)	5255.1 (1.9)	4,398.5 (Δ16.3)
무역수지	308.0	282.9	440.5	471.5	920.0
고용동향 (천명, %)					
경제활동인구	25,099	25,501	25,873	26,536	26,913
취업자	24,244	24,681	25,066	25,599	25,936
고용률	59.1	59.4	59.5	60.2	60.3
실업자 (실업률)	855 (3.4)	820 (3.2)	807 (3.1)	937 (3.5)	976 (3.6)
물가동향 (2010=100, %)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104.0 (4.0)	106.3 (2.2)	107.7 (1.3)	109.0 (1.3)	109.8 (0.8)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대비)	106.7 (6.7)	107.5 (0.7)	105.7 (Δ1.7)	105.2 (0.5)	101.0 (Δ4.2)

* 참고자료: 기획재정부(2015년 경제전망), 한국은행(경제활동별 성장률, 물가동향), 무역협회(수출동향), 통계청(고용동향)

중소기업동향

2015년은 엔저로 인한 수출 실적 악화로 중소기업 생산지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2012년부터 이어진 감소세를 이어가며, 특히 중화학 부문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연간 신설법인 수는 정부의 창업촉진정책 강화와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93,765개를 기록했다. 또한 부도업체수도 전년 대비 14.4% 감소한 720개로 2009년 이후 이어진 감소세를 계속 이어나갔다. 정부의 중소기업 중점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2015년도 말 기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한 576조원을 기록했다. 또한 2015년 6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내린 이래 꾸준한 기준금리 동결 상태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3.87%로 전년 대비 0.7%p 하락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연체율의 경우에는 연말을 앞두고 정리된 연체채권 규모가 신규연체 발생액을 크게 웃돌아 전년 동기대비 0.11%p 하락하였고 2011년 이후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관련 주요지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제조업 생산동향 (2010=100 기준)						
제조업 생산지수	106.0	107.5	107.8	107.5	107.6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104.4	105.4	107.1	106.5	105.1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						
중소제조업(%)	16.8	16.6	16.1	15.2	14.7	
- 중화학	19.0	18.1	17.8	16.6	15.8	
- 경공업	13.4	14.1	13.2	12.9	13.8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평균가동률(%)	80.5	78.5	76.5	76.2	74.3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72.2	71.1	71.8	71.5	71.8	
제조업 가동률지수 (2010=100 기준)	100.2	97.5	95.1	94.3	92.1	
창업 및 부도동향						
신설법인 수(A) (개)	65,110	74,162	75,578	84,697	93,765	
부도법인 수(B) (개)	967	890	705	614	517	
신설/부도배율(A/B) (%)	67.3	83.3	107.2	137.9	181.4	
부도업체 수 (개)	1,359	1,228	1,001	841	720	
어음부도율 (전자결제조정후, %)	0.02	0.02	0.02	0.02	0.02	
금융동향						
대출잔액 (원화대출, 연말, 조원)	중소기업	441.4	446.8	489.0	522.4	576.6
	대기업	115.1	142.2	166.1	183.5	179.3
대출금리 (신규액기준) (연 %)	중소기업	6.00	5.66	4.92	4.60	3.87
	대기업	5.50	5.18	4.46	4.10	3.40
대출연체율 (12월말기준, %)	중소기업	1.34	1.02	0.88	0.84	0.73
	대기업	0.25	0.83	0.81	0.57	0.92

* 자료: 통계청(생산동향, 설비투자 실시업체비율,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창업 및 부도동향), 금융감독원(금융동향)

2015 HIGHLIGHT



01

진주 본사 이전 후 첫 창립기념일, 창립 36주년 기념식 개최

2015. 1. 30

중진공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 경남 진주사옥에서 창립기념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2014년 7월 본사 진주 이전 후 처음 열리는 창립기념일 행사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되었다. 임채운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화, 「인력지원 강화」, 「창업에서 재도전까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 「중진공 조직 혁신」의 네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경영, 창의경영, 성과경영, 신뢰경영 등 미래를 위한 4대 경영방침을 밝혔다.



03



02

중진공, 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2015. 2. 26

중진공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5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 결과 2년 연속 '중소기업 진흥'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진공은 종합평가를 비롯해 혁신능력, 경영진의 경영능력, 사회공헌 등 12개 세부평가항목 모두에서 1위에 올랐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청년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4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식 개최

2015. 3. 26

중소기업연수원에서는 우수한 청년창업자를 양성해 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제4기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임채운 이사장을 비롯한 벤처·창업 관련 유관기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졸업생 및 가족 500여 명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본 행사에는 창업과정의 애환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우수 졸업자 표창수여(7명), 우수제품 퍼포먼스 시연에 이어 가족이 직접 읽어주는 희망의 편지와 졸업생과 사관학교 관계자가 함께하는 축하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04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협약 체결

2015. 4. 7

임채운 이사장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진단기반 정책금융 강화 등 총 189건의 임원 및 부서장 핵심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중진공 핵심과제는 임원 및 부서장이 기관 경영에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책임 있게 실행함으로써 기관 전략목표 및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05

중진공-中企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2015. 5. 14

중진공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김문겸)과 중소기업 규제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및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체결된 업무협약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재협약이다. 양 기관은 현장애로사항 수집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및 정보 공유 등으로 상호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중진공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전달한 543건의 애로사항 중 86건이 법령개정 등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06

제2회 중진공 윤리경영의 날 행사 개최

2015. 6. 2

중진공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실천다짐을 위한 '제2회 중진공 윤리경영의 날' 행사를 진주 본사 및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와 5개 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로 반부패·청렴 서약식에서는 중진공 경영진이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을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객진영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청렴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07

중소 인식개선 '중소기업 체험캠프' 개최

2015. 7. 27

중진공은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체험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7월 27일 수도권 권역 캠프를 시작으로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순서로 총 4회에 걸쳐 회당 60명씩 총 240여 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2박 3일간의 합숙 기간 동안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후 1~2주 동안 중소기업 재직자 멘토와 함께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중소기업 현장을 몸소 느끼는 등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08

수출입은행과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지속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15. 8. 26

중진공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각 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글로벌 강소기업,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과 수출입은행의 하든챔피언 사업을 연계지원하며 수출입은행의 전략산업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추천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및 해외진출금융 사업을 중진공 해외마케팅 사업과 연계지원하며,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 기존 거래기업 중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추천할 예정이다.



09

추석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개최

2015. 9. 23

중진공 본사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주중앙유등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중진공 본사 임직원 및 경남서부지부 직원 등 총 250여명이 참가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추석 제수용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한 장바구니 800개를 시민에게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임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별 석식 간담회를 실시하여 추석을 앞두고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 2012년 5월 16일 진주중앙유등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명절기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10

중진공, 중소기업 교류협력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10. 28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2015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교류 협력과 융합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진공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진공은 지난 1994년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국이업중교류연합회 창립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및 13개 지역연합회를 중심으로 320여개의 단위교류회를 활발히 운영 지원중이다. 중진공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교류 지원에 박차를 가하여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11

중진공-현대백화점, 청년창업기획전 개최

2015. 11. 27

중진공은 2015년 11월 27일(화)부터 3일간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청년창업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중진공은 이번 기획전을 위해 지역본부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추천 제품, 수출전략상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343개의 우수제품을 발굴하였다. 현대백화점은 실물품평회를 통해 12개사 제품을 최종 참여제품으로 선정하여 기획전을 진행하였다. 양 기관은 청년창업기획전 테스트 판매 결과에 따라 기획전 참여기업에 대해 매장입점, 품질개선 컨설팅, 정책옹호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식 및 내일채움공제 1만명 돌파 기념식

2015. 12. 17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티클럽에서 인재육성 모범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식 및 내일채움공제 1만명 돌파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2014년 8월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11월 기준 가입자수 1만 411명으로 출범 1년 3개월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지난해 100개사에 이어 올해 150개사가 지정되었다. 향후 중진공은 인재육성형 기업에 대한 정책옹호자 신설, 채용박람회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01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ANNUAL REPORT
2015

18	2015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20	기업진단
22	정책옹자
56	마케팅·글로벌화
72	인력양성
83	기술컨설팅

2015년 사업추진 방향 및 실적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자생력강화와 글로벌화를 주요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금신청 체계 개선과 메르스 피해 지원, 정책금융 연대 보증 제도 등을 개선했다.

중진공이 2015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진공 사업추진 기반인 **기업진단**을 통해 정책용자 신청업체에 대해 총 13,255억원의 정책용자를 지원하였고, 지원 후에는 사후관리 진단을 실시하여 정책용자의 효과성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용자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중진공 사업과 R&D, 보증 등의 유관기관 사업도 연계하여 진단기업에 대해 총 3,936건의 정책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정책용자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총 17,796개 기업에 39,019억원(100.3%)을 집행하였다. 특히, 메르스 피해 중소 병·의원과 중소기업 전용자금(1,238억원)을 신설하여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재창업자금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개선전용자금이 신설되었다.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존 용자·보증 경험과 관계없이 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용자가 가능하도록 용자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우수 청년 창업자에 대한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사업 실패 경험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를 위하여 전년(512억원) 대비 36.7% 증가한 700억원의 재창업자금을 집행하였다.

2015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던 컨설팅 지원사업(수요자선택형 컨설팅, 컨설팅 대학원)을 일원화(컨설팅 업무, 인력, 예산 통합)하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 기술사업화를 추진하여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사업화 기획 32개사, 제품화 지원 20개사를 지원하였다.

마케팅·글로벌화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지역중소기업수출 마케팅사업에 1,677개 업체가 참여하여 94백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온라인으로는 Gobizkorea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2015년까지 중소기업 43,186개사의 173,333개의 상품정보를 DB로 구축하였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HIT500 제품 319개를 발굴하고, 국내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등 15개)과 온라인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 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을 통해 연간 3,471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은 착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장점을 갖춘 34개 품목 82개의 스마트제품을 발굴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기여했다. 그리고 해외 대형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소비자 직접판매 12억원, 연계판매 114억원, 프로모션 15억원 등 2015년 한해 141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체결(5개국 7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15개국 28명), 해외시장 진출환경 세미나(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7개사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인력양성사업 중 연수사업은 중소기업임직원 67,975명을 대상으로 기술, 품질, 경영, IT, 디지털, 기업혁신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5년(누적기준) 10,123명이 가입하여 가입목표 10,000명을 초과달성하였고, 중소기업 기술인력 완화를 위해 일본, 미국, 인도 등으로부터 원천기술, IT분야의 외국 전문 기술인력 129명 도입을 지원하였다. 2015년 4월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인력양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중진공으로 이관되어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의 역량강화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에도 중진공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내·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성장·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지원, 인력, 판로·수출지원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기업진단

기업진단사업은 정책용자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응자 후의 사후진단을 통해 정책용자의 정책목적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기업부실의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재도전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창업기반·안정성·생산성·기술성 등의 역량수준 측정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사후관리 진단 모듈을 개발·운영하였고 재도전기업에 대한 진단을 2014년 75건에서 2015년 272건으로 확대함으로써 재도전기업에 대한 생존율을 제고하였다.

기업진단 추진절차

절차	업무내용
신청·접수	·기업진단 신청서 접수(기업현황표, 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서류 징구) * 기업진단 신청서에 애로분야 표기 및 상담
↓	
진단·평가	·업체방문/실태조사 ·진단은 3가지 방식(KPI기반, 진단자기반, 성과관리기반)으로 수행
↓	
처방	·진단평가 결과통보(보고서 송부 및 프레젠테이션) ·사업연계추천서발급(정책용자 필요기업은 기업등급 동시산출) ·연계지원 안내 및 상담
↓	
치료	·정책용자 : 소요금액 검토 후 대출 ·자금이의 사업 : 사업별 연계지원 ·타기관 사업 : 정보제공 및 연계지원(R&D, 보증, 기타)
↓	
치유	·연계지원 실적집계 및 관리(4대 핵심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에 연계지원 결과를 피드백하여 계획수립에 반영

진단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진단자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단 역량 수준별 과정인 기업진단 아카데미를 개설·운영 하였으며 진단자격증을 도입하여 이수자 총 142명 중 56명(3급 39명, 2급 17명)을 기업진단사로 양성하였다. 또한 현장기술동영상, SBC지식IN, 진단 학습자료(진단Tool소개와 이해)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단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제적 환경 변화와 기업 내·외부적 변화에 맞춘 기업진단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 연구기관에 사업성과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기업진단의 종합만족도는 진단을 받은 기업의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기업진단 내용의 충실도가 좌우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단기반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진단 시스템 제고 및 진단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소기업의 애로해결 및 자생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내 첫 기업진단사 6명 자격증 수여

39

기업진단사 3급(명)

17

기업진단사 2급(명)

기업진단 아카데미
이수자 총 142명

2015년도에는 정책용자 신청업체에 대해 기업진단을 통해 총 13,255억원의 정책용자를 지원하였고, 정책용자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진단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용자의 효과성 달성은 물론 기금의 부실을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책용자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 파악된 기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진단기업에게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등의 정책사업을 추천하여 3,936건의 정책사업을 연계지원하였다.

중진공 사업연계 분야별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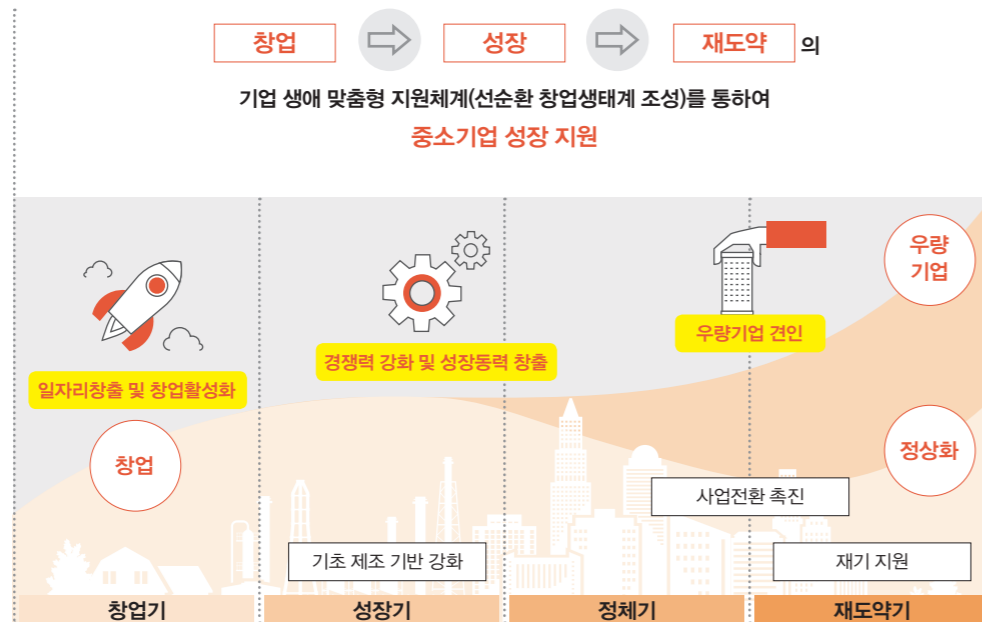
구분	중진공 사업연계				
	자금	기술지원	마케팅	연수	총계
진단기반 연계지원	3,166건 (13,255억원)	281건	9건	480건	3,936건

TDB : 기술평가기관 및 TCB의
기술평가정보로 제품기반
기술·시장동향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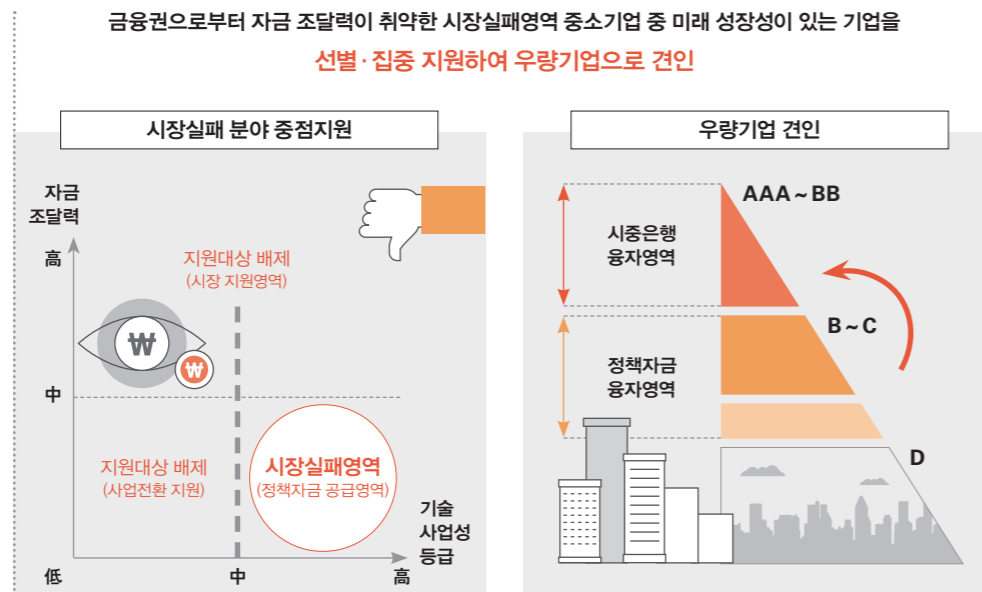
정부의 기술금융 정책 반영 및 기술가치평가정보의 질적 제고를 위해 TDB(Tech Data Base)를 15년 9월 도입하고 기술평가기관간 정보 공유에 참여하였으며, 중진공 기술가치평가정보를 TDB에 51건 제공하였다. 또한 담보력 부재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가치를 평가하여 정책용자를 지원하는 IP담보대출을 2014년 162억원(44개사)에서 2015년 222억원(66개사)으로 확대하였으며, 최신 업황을 반영한 DCF법(현금흐름할인법) 평가기준 개정 및 로열티공제법 평가모형 신규적용을 함으로써 기술가치평가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였다.

정책용자

정책용자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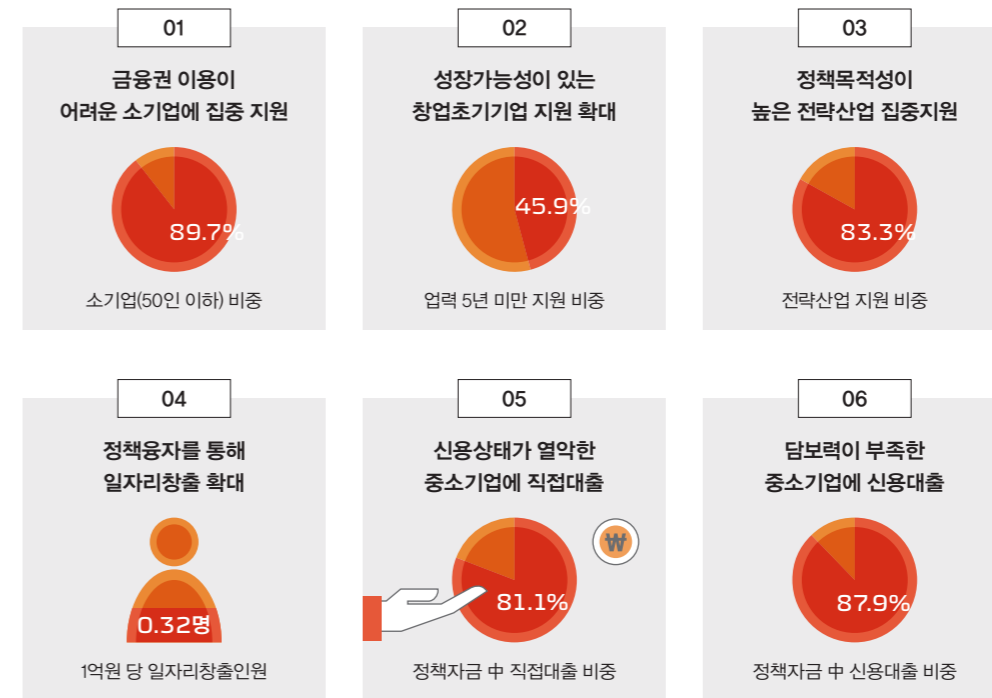


정책용자 역할



2015년 정책용자 실적

기준 : 2015년 총 정책용자 금액대비



2015년도 정책용자 규모는 38,890억원(당초 30,26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총 17,796개 기업에 39,019억원(100.3%)을 집행하였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자금신청 체계 개선과 메르스 피해 지원, 정책금융 연대 보증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였다.

기존 선착순 방식의 자금신청을 사전상담을 통한 상시 접수로 개선하여 자금 조기마감을 해소하고, 수요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온라인 자가진단과 상시접수를 통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기업에 대한 자금신청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자금(1,238억원)을 신설하여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자금 지원 처리기간 단축, 본사인력 지원 등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여 신속한 집행을 통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아울러 창업활성화를 위해 2015년 1월부터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 기업은 조건 없이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SB- 등급은 자금종류에 관계없이 7년 미만 창업 기업에 대해 적용하여 연대보증 대상 을 확대하여 도전적 창업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4.12	
기업평가등급	가산금리
SA+(1), SA(2) (청창 YA)	0.4%
SB+(3), SB(4) (청창 YB)	0.6%
SB-(5) (창업자금만 해당)	0.8%

2015년		
기업평가등급	연대 보증	가산 금리
SA+(1), SA(2) (청창 YA)	면제	없음
SB+(3), SB(4) (청창 YB)		
SB-(5) (7년 미만 창업기업)	조건부	0.5%

창업기업자금

창업기업자금은 창업 활성화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1998년 창업기업지원 자금을 시작으로 2010년 재창업자금, 2012년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창업기업자금은 예산 15,000억원(창업기업지원자금 13,900억원, 청년전용창업 1,100억원)을 11,926개 업체에 대어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어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창업기업지원	1,390,000	8,929	2,979,664	6,709	1,390,000	
청년전용창업	110,000	2,997	263,984	1,457	110,000	
계	1,500,000	11,926	3,243,648	8,166	1,500,000	

2015년 창업기업자금 총괄 지원실적

가. 창업기업지원자금

①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금으로, 2015년까지 47,031개사에 12조 6,198억원을 대어하였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사업은 성장유망 창업 및 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15,000억원을 조성하여 연 예산 100%를 집행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어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500,000	11,926	3,243,648	8,166	1,500,000

창업자금 지원업체의 업력은 설립 1년 미만 4,300억원(28.7%), 설립 1년 이상~3년 미만 4,337억원(28.9%), 설립 3년 이상~5년 미만 3,949억원(26.3%), 설립 5년 이상~7년 미만 2,414억원(16.1%)이 지원되어 창업초기기업 지원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대어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년 미만	4,169	1,030,562	2,350	429,986
1년 이상 ~ 3년 미만	4,055	1,071,273	2,852	433,688
3년 이상 ~ 5년 미만	2,331	703,914	1,882	394,880
5년 이상 ~ 7년 미만	1,325	418,607	1,082	241,446
7년 이상	46	19,292	0	0
계	11,926	3,243,648	8,166	1,500,000

2015년 업력별 지원실적

설립 1년 미만	4,300억원	28.7%
설립 1년 이상~3년 미만	4,337억원	28.9%
설립 3년 이상~5년 미만	3,949억원	26.3%
설립 5년 이상~7년 미만	2,414억원	16.1%

지원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5억원 미만 기업이 41.2%(6,180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전체 예산 중 94.6%(14,193억원)를 집행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어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5억원 미만	6,949	1,596,408	4,054	618,039	41.2
5 ~ 10억원 미만	1,167	288,592	889	137,498	9.2
10 ~ 50억원 미만	3,082	1,012,478	2,594	534,148	35.6
50 ~ 100억원 미만	483	220,994	424	129,646	8.6
100 ~ 300억원 미만	220	108,176	180	66,047	4.4
300억원 이상	25	17,000	25	14,622	1.0
계	11,926	3,243,648	8,166	1,500,000	100.0

2015년 창업기업지원자금 매출액 규모별 지원실적

지역별로는 경기 21.7%(3,262억원), 서울 10.4%(1,564억원), 경남 10.3%(1,545억원)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62.6%(9,396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어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2,318	435,470	1,323	156,380	10.4
부산	638	177,000	493	95,840	6.4
대구	553	120,159	406	73,211	4.9
인천	796	162,463	514	77,747	5.2
광주	453	113,263	312	58,555	3.9
대전	298	61,735	205	31,929	2.1
울산	262	99,281	184	48,532	3.2
경기	2,721	706,594	1,893	326,235	21.7
강원	252	64,441	196	39,550	2.6
충북	524	213,030	380	93,202	6.2
충남	436	194,147	283	72,286	4.8
전북	448	193,192	249	67,550	4.5
전남	341	126,030	254	52,962	3.5
경북	798	261,830	627	134,457	9.0
경남	945	274,120	742	154,540	10.3
제주	124	33,909	94	14,393	1.0
세종	19	6,984	11	2,631	0.2
계	11,926	3,243,648	8,166	1,500,000	100.0

2015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역별 지원실적

직접대출 지원액이 74.8%(1조1,224억원)이며, 직접대출 중 신용 대출 비중이 84.2%(9,456억원)로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단위: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377,572	945,582	64,570	112,276	1,122,428	1,500,000

2015년 창업기업지원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나. 청년전용창업자금

①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 39세이하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자에게 저금리(2.7% 고정금리)의 창업자금과 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457개 업체에 1,100억원을 집행하였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에는 융자상환금조정형으로만 1,457개 업체에 1,100억원을 지원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단위: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10,000	2,995	263,334	1,457	110,000

2015년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실적

구분	지원결과	
창업교육(업체수)	998	
멘토링	멘토링(회)	5,390
	석세스코칭(건)	1,419
수출지원	상품페이지(업체수)	100
	디렉토리북(업체수)	97
	해외전시회(업체수)	36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이후 후속 연계지원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애로해결을 위해 현업전문가의 석세스코칭을 958개사(1,419건)에 실시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하여 6개월간 수출지원을 통해 5개사 118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기여하였다.

③ 제도개선 사항

실효성 및 정책 목적성이 저하된 민간금융매칭형 운용방식을 폐지하고 중진공 직접 취급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자금 운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였고,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존 융자·보증 경험과 관계없이 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융자 가능하도록 융자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우수 청년 창업자에 대한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자금 내 구조 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에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년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신성장기반자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역사업으로는 2014년에 시설자금 장기 대출인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을 신설했으며, 2015년에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초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제조기업전용자금을 신설하였다.

2015년 신성장기반자금의 예산은 11,270억원의 100%를 집행하였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성장유망	534,100	1,872	992,975	1,491	534,100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43,000	54	53,393	50	43,000
융복합사업	76,500	175	111,450	173	76,500
가젤형기업전용자금	280,000	696	417,872	631	280,000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193,400	1,904	283,120	1,637	193,400
계	1,127,000	4,701	1,858,810	3,982	1,127,000

2015년 신성장기반자금 총괄 지원실적

가. 신성장유망

① 사업개요

신성장유망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과 초기 가동비, 기술개발비와 같은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에는 1,491개사에 5,34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단위: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534,100	1,872	992,975	1,491	534,100

2015년 신성장유망자금 총괄 지원실적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7.9%,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32.1%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35.9%로 가장 높고, 섬유화공 13.4%, 잡화음식료 12.3%, 전기전자 6.3%순이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487	359,553	364	191,741	35.9
전기전자	73	55,909	60	33,719	6.3
섬유화공	162	138,023	121	71,721	13.4
잡화음식료	200	125,771	151	65,572	12.3
기타	950	313,719	795	171,347	32.1
계	1,872	992,975	1,491	534,100	100.0

2015년 신성장유망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2015년 신성장유망자금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중업원 규모별로는 중업원 수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예산의 81.8%(4,370억원)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5인 이하	414	27.8	82,095	15.4
6 ~ 20인 이하	634	42.5	202,047	37.8
21 ~ 50인 이하	299	20.1	152,819	28.6
51 ~ 100인 이하	99	6.6	60,864	11.4
101 ~ 300인 이하	42	2.8	35,375	6.6
300인 초과	3	0.2	900	0.2
계	1,491	100	534,1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22.9%(1,221억원) 등 수도권 소재 업체 자금지원이 1,972억원(37.0%), 지방 소재 업체는 3,369억원(63.0%)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중 지원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324	124,434	248	55,030	10.3
인천	78	40,791	59	20,064	3.8
경기	427	249,907	319	122,138	22.9
부산	123	57,491	117	40,775	7.6
대구	73	26,638	59	23,300	4.4
광주	67	35,766	46	15,340	2.9
대전	33	17,567	27	7,727	1.4
울산	66	30,277	58	21,321	4.0
강원	37	16,171	33	8,650	1.6
충북	85	66,580	63	32,795	6.1
충남	93	89,001	77	44,649	8.4
전북	88	47,797	67	23,069	4.3
전남	65	26,060	54	18,280	3.4
경북	148	72,514	125	45,680	8.6
경남	143	81,781	118	49,732	9.3
제주	15	4,750	16	4,140	0.8
세종	7	5,450	5	1,410	0.3
계	1,872	992,975	1,491	534,100	100.0

2015년 신성장유망자금 지역별 지원실적

2015년 신성장유망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직접대출이 63.6%(3,399억원)이고 이 중 신용대출이 78.0%(2,651억원), 보증서 대출이 6.3%(215억원), 부동산 대출이 15.7%(533억원)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94,218	265,058	21,479	53,345	339,882	534,100

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① 사업개요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2014년도 신설되었으며, 장기 저리로 시설자금 및 초기가동비를 지원하였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에는 50개사에 4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43,000	54	53,393	50	43,000

2015년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총괄 지원실적

업종별 지원현황은 제조업 지원 비중이 91.5%,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8.5%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44.2%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20.9%, 전기전자 13.4%, 잡화음식료 13.0%순이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24	23,779	22	19,022	44.2
전기전자	4	7,220	4	5,757	13.4
섬유화학	11	11,605	9	8,973	20.9
잡화음식료	8	5,261	9	5,600	13.0
기타	7	5,528	6	3,648	8.5
계	54	53,393	50	43,000	100.0

2015년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2015년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중업원 규모별로는 21~50인 미만의 기업에 37.4%(161억원)를 지원하여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발판 마련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5인 미만	10	20.0	5,570	13.0
6 ~ 20인 미만	24	48.0	14,223	33.1
21 ~ 50인 미만	10	20.0	16,100	37.4
51 ~ 100인 미만	4	8.0	4,690	10.9
101 ~ 300인 미만	2	4.0	2,417	5.6
300인 이상	-	-	-	-
계	50	100.0	43,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 15.4%(66억원)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117억원(27.2%), 수도권 이외 지역이 303억원(72.8%)으로 지방소재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3	2,958	2	2,020	4.7
인천	8	5,247	7	3,050	7.1
경기	7	8,635	7	6,628	15.4
부산	6	3,500	5	1,800	4.2
대구	-	-	1	2,100	4.9
광주	3	2,070	3	1,980	4.6
대전	4	6,745	3	3,490	8.1
울산	2	2,620	2	2,425	5.6
강원	2	1,931	2	1,450	3.4
충북	3	2,300	4	2,730	6.3
충남	-	-	1	600	1.4
전북	4	4,900	2	3,470	8.1
전남	1	500	1	300	0.7
경북	3	5,200	3	4,300	10.0
경남	7	5,350	7	6,657	15.5
제주	-	-	-	-	0.0
세종	1	1,437	-	-	0.0
계	54	53,393	50	43,000	100.0

2015년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지역별 지원실적

2015년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2015년 편성된 예산 430억원이 전액 직접대출로 지원되었으며, 이 중 보증서 대출이 14.8%(64억원), 부동산 대출이 82.8%(356억원)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	1,030	6,379	35,591	43,000	43,000

다. 융복합사업

① 사업개요

융복합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지역에 공장과 부대시설, 생산·실험연구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투자비를 절감하고 상호 경영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에는 173개사에 765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6,500	175	111,450	173	76,500

2015년 융복합사업
총괄 지원실적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71.5%으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으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이 43.3%로 가장 높고, 잡화음식료 3.3%, 섬유화공 20.4%, 전기전자 4.5%순이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63	29,055	71	33,099	43.3
전기전자	10	10,419	10	3,452	4.5
섬유화공	26	18,494	29	15,640	20.4
잡화음식료	11	9,170	7	2,510	3.3
기타	65	44,312	56	21,800	28.5
계	175	111,450	173	76,501	100.0

2015년 융복합사업 업종별 지원실적

중업원 규모별로는 50인 이하의 소기업에 융복합사업자금 예산의 87.7%(671억원)를 지원하여 비교적 경영기반이 취약한 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5인 이하	51	29.5	23,030	30.1
6 ~ 20인 이하	83	48.0	28,184	36.9
21 ~ 50인 이하	32	18.5	15,873	20.7
51 ~ 100인 이하	7	4.0	9,413	12.3
101 ~ 300인 이하	-	-	-	-
300인 초과	-	-	-	-
계	173	100.0	76,500	100.0

2015년 융복합사업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지역별로는 경기 25.2%(193억원), 광주 13.3%(102억원), 울산 8.6%(66억원)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67.0%(512억원)을 지원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12	6,205	13	5,570	7.3
인천	3	420	3	420	0.5
경기	42	24,454	48	19,280	25.2
부산	31	13,262	23	6,472	8.5
대구	7	3,250	7	3,250	4.2
광주	11	5,270	14	10,210	13.3
대전	11	12,897	6	2,530	3.3
울산	2	400	5	6,600	8.6
강원	8	6,995	8	6,330	8.3
충북	6	22,524	5	3,778	4.9
충남	5	1,500	6	2,220	2.9
전북	5	1,900	5	1,900	2.5
전남	-	-	-	-	0.0
경북	14	7,203	11	3,260	4.3
경남	13	4,560	15	4,130	5.4
제주	5	610	4	550	0.7
계	175	111,450	173	76,500	100.0

2015년 융복합사업 지역별 지원실적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직접대출이 49.0%(375억원)이며 그중에서도 신용대출이 76.1%(285억원), 보증서 대출이 19.0% (71억원), 부동산 대출이 4.9%(18억원)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39,018	28,511	7,138	1,833	37,482	76,500

2015년 융복합사업 담보별 지원실적

라. 가젤형기업전용자금

① 사업개요

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고용 및 매출액이 크게 뛰는 고성장(가젤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5년에 신설되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 20%이상 고속 성장한 기업에 시설자금 및 초기가동비를 지원하였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 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631개사에 2,800억원의 정책적지원을 제공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80,000	696	417,872	631	280,000

2015년 가젤형기업전용자금 총괄 지원실적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제조업이 83.5%으로 지원비중이 높으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52.7%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14.7%, 전기전자 10.6%, 잡화음식료 16.5%순이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267	170,824	243	117,977	42.1
전기전자	85	50,358	71	29,562	10.6
섬유화학	98	61,018	85	41,154	14.7
잡화음식료	125	62,512	120	45,200	16.1
기타	121	73,160	112	46,107	16.5
계	696	417,872	631	280,000	100.0

2015년 가젤형기업전용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중업원 규모별로는 21~50인 미만의 기업에 49.9%(140억원)을 지원하여 고성장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5인 미만	1	0.2	300	0.1
6 ~ 20인 미만	174	27.6	56,540	20.2
21 ~ 50인 미만	321	50.9	139,785	49.9
51 ~ 100인 미만	96	15.2	57,497	20.5
101~ 300인 미만	39	6.1	25,878	9.3
300인 이상	-	-	-	-
계	631	100	280,000	100.0

2015년 가젤형기업전용자금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지역별로는 경기 19.6%(549억원)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1,006억원(35.9%), 지방 소재 업체는 1,794억원(64.1%)으로 나타나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방 소재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74	53,000	68	33,580	12.0
인천	31	17,263	25	12,150	4.3
경기	158	101,010	133	54,870	19.6
부산	38	21,802	39	19,400	6.9
대구	32	20,301	30	14,950	5.3
광주	24	11,215	23	7,765	2.8
대전	9	8,350	7	5,180	1.9
울산	22	11,427	22	11,035	3.9
강원	18	6,130	18	4,600	1.6
충북	40	23,712	35	16,500	5.9
충남	33	22,150	33	19,240	6.9
전북	32	14,760	29	11,700	4.2
전남	37	17,677	32	11,335	4.0
경북	69	39,248	63	24,930	8.9
경남	72	46,827	67	30,065	10.7
제주	3	800	3	700	0.3
세종	4	2,200	4	2,000	0.7
계	696	417,872	631	280,000	100.0

2015년 가젤형기업전용자금 지역별 지원실적

예산(2,800억원) 중 대리대출로 717억원(25.6%), 직접대출로는 2,083억원(74.4%) 지원되었다. 직접대출 지원 중 신용 대출이 95.7%(1,992억원), 부동산 대출이 2.6%(55억원), 보증서 대출이 1.7%(35억원)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71,694	199,258	3,535	5,513	208,306	280,000

2015년 가젤형기업전용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③ 제도개선사항

가젤형기업전용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 'BBB', 'BB'등급 지원 및 매출액 한도(1,000억원) 예외를 적용하여 우량기업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업력 4년 이상(기존 업력 7년 이상)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우대방안을 실시하였다.

마.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① 사업개요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을 위해 2015년도 신설되었으며, 자금지원을 통해 예비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에 1,637개사에 1,934억원을 지원하여 기초제조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93,400	1,904	283,120	1,637	193,400

2015년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총괄 지원실적

업종별 지원현황에서 제조업 지원 비중이 99.9%으로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업종별로는 기계 금속이 67.4%으로 가장 높고, 섬유화학 15.6%, 전기전자 9.8%, 잡화음식료 7.1%순이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1,248	184,927	1,095	130,326	67.4
전기전자	221	31,110	181	19,088	9.8
섬유화학	274	43,267	237	30,133	15.6
잡화음식료	146	20,986	122	13,653	7.1
기타	15	2,830	2	200	0.1
계	1,904	283,120	1,637	193,400	100.0

2015년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중업원 규모별로는 20인이하의 소기업에 99.8%(1,930억원)을 지원하여 기초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5인 이하	1,151	70.3	129,815	67.1
6 ~ 20인 이하	483	29.5	63,185	32.7
21 ~ 50인 이하	3	0.2	400	0.2
51 ~ 100인 이하	-	-	-	-
101 ~ 300인 이하	-	-	-	-
300인 초과	-	-	-	-
계	1,637	99.8	193,400	100.0

2015년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지역별로는 경기 24.3%(470억원) 등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684억원(35.4%), 수도권 이외 지역이 1,250억원(64.6%)으로 나타나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방소재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99	16,330	76	9,490	4.9
인천	135	16,354	117	11,910	6.2
경기	502	73,008	422	46,990	24.3
부산	113	16,630	103	12,900	6.7
대구	113	15,750	106	13,500	7.0
광주	71	11,180	62	9,162	4.7
대전	54	7,890	42	4,550	2.4
울산	74	8,225	65	5,880	3.0
강원	50	8,130	47	6,310	3.3
충북	98	15,590	81	9,800	5.1
충남	67	10,254	58	7,050	3.6
전북	73	11,845	62	7,780	4.0
전남	49	8,135	44	6,138	3.2
경북	167	27,976	141	16,220	8.4
경남	234	35,123	207	25,220	13.0
제주	2	300	2	300	0.2
세종	3	400	2	200	0.1
계	1,904	283,120	1,637	193,400	100.0

2015년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지역별 지원실적

예산 1,934억원 중 대리 대출로 110억원(5.7%) 지원되었으며, 직접대출로 지원한 1,824억원(94.3%) 중 신용대출이 96.1%(1,753억원), 부동산 대출 2.9%(54억원), 보증서 대출 0.9%(17억원)으로 드러났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11,030	175,315	1,698	5,357	182,370	193,400

2015년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③ 제도개선사항

2015년 신성장기반자금 내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을 신설하여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초제조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 또는 내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애로, 수출금융 확보 애로 및 재해피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구조개선자금 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원부자재 구입지원사업, 재해복구지원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였고, 2009년부터 사업전환지원사업의 회생특례 지원자금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하였다.

2015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 6,000억원을(수출금융지원 1,500억원, 재해복구지원 및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메르스피해 자금 1,238억원 포함) 1,381억원, 일반경영안정지원 3,119억원) 전액 집행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수출금융지원	150,000	387	147,478	414	162,944	
재해복구지원	138,144	3	474	3	384	
일시적경영애로지원*		664	199,575	597	137,760	
일반경영안정지원	311,856	1,841	459,104	1,607	311,856	
계	600,000	2,895	806,631	2,621	612,944	

주) 수출금융지원은 예산내에서 6개월 이내의 회전금융으로 예산보다 집행 금액이 많음
* 메르스피해 자금(123,750백만원) 517개사 123,750백만원 지원

가. 수출금융지원

① 사업개요

수출금융지원은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② 사업추진현황

414개사에 1,629억원을 회전자금으로 지원하여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애로 및 무역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50,000	387	147,478	414	162,944

주) 회전대출을 포함한 실적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8.3%으로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34.9%로 가장 높고, 섬유화공 23.0%, 잡화음식료 9.3%, 전기전자 11.1%순이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115	48,890	135	56,891	34.9
전기전자	45	16,102	45	18,090	11.1
섬유화공	82	30,109	90	37,426	23.0
잡화음식료	43	14,690	43	15,180	9.3
기타	102	37,687	101	35,357	21.7
계	387	147,478	414	162,944	100.0

지역별로는 서울 185억원(11.4%), 인천 97억원(6.0%), 경기 61억원(3.7%) 등 수도권에서 343억원(21.1%)을 지원하였으며, 울산지역에 22.1%인 360억원을 집행하는 등 비수도권에서 1,286억원(78.9%)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서울	42	17,650	44	18,520	11.4
인천	31	7,580	24	9,747	6.0
경기	101	35,292	21	6,070	3.7
부산	18	5,992	31	7,180	4.4
대구	14	4,770	9	5,800	3.6
광주	8	6,550	14	2,200	1.4
대전	12	2,550	6	5,210	3.2
울산	7	4,400	110	36,030	22.1
강원	5	1,450	6	2,500	1.5
충북	21	9,790	20	12,600	7.7
충남	19	9,570	17	8,330	5.1
전북	16	8,100	12	7,600	4.7
전남	22	6,419	20	6,376	3.9
경북	33	12,615	37	15,395	9.4
경남	36	13,950	40	18,396	11.3
제주	2	800	3	990	0.6
계	387	147,478	414	162,944	100.0

주)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예산 내에서 6개월 이내의 회전 금융으로 운용되어 예산보다 집행 금액이 많음

2015년 수출금융지원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2015년 수출금융지원자금
지역별 지원실적

중업원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의 소기업에 전체 지원업체의 96.4%(399개), 총 지원금액의 93.9%(1,531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 미만	68	16,657	16.4	10.2
5 ~ 20인 미만	158	52,157	38.2	32.0
20 ~ 50인 미만	116	49,080	28.0	30.1
50 ~ 100인 미만	57	35,250	13.8	21.6
100~ 300인 미만	14	9,650	3.4	6.0
300인 이상	1	150	0.2	0.1
계	414	162,944	100.0	100.0

2015년 수출금융지원자금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재해복구지원은 전체지원액을 신용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하여,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소요비용의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	384	-	-	384	384

2015년 재해복구지원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수출금융지원은 직접대출로만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액 전체 1,629억원을 100% 신용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신용	기타	계
담보별	162,944	0	162,944

2015년 수출금융지원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③ 제도개선사항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경영애로지원과 공동예산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자금이 적시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다. 일시적경영애로지원

① 사업개요

일시적경영애로지원은 일시적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추진현황

대형사고 피해기업, 환율변동 피해기업, 메르스 피해 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에 처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기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메르스피해	554	166,845	517	123,750
대형사고 피해	29	9,700	26	5,170
매출감소 기업	58	15,530	39	6,510
매출채권 회수지연	8	2,200	4	600
환율변동피해	9	3,800	7	1,280
기타	6	1,500	4	450
계	664	199,575	597	137,760

2015년 일시적경영애로지원자금 기업유형별 사업추진실적

나. 재해복구지원

① 사업개요

재해복구지원은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을 지원하여 재해중소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추진현황

폭설, 폭우 등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총 3개사에 4억원을 지원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폭설	3	474	3	384
폭우	-	-	-	-
기타	-	-	-	-
계	3	474	3	384

2015년 재해복구지원자금 재해유형별 사업추진실적

전체지원액을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대출의 100%를 신용으로 집행하여 중소기업의 급격한 자금경색과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상황 속에서 신속한 신용대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	137,760	-	-	137,760	137,760

③ 제도개선사항

대내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반영하여 메르스피해 자금(1,238억원) 등 일시적경영안정지원 대상 및 예산을 신속히 추가 운영하였다.

라. 일반경영안정지원

① 사업개요

일반경영안정지원은 원부자재 구입, 제품생산, 개발, 시장개척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기금운용계획변경(국회)을 통해 2015년 일시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② 사업추진현황

1,607개사에 3,119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증대에 기여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11,856	1,841	459,104	1,607	311,856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9.4%,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30.6%로 제조업 지원비중이 높으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 업종이 32.5%로 가장 높고, 잡화음식료 15.7%, 섬유화공 14.5%, 전기전자 6.7%순이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600	149,699	510	101,415	32.5
전기전자	114	31,610	100	20,830	6.7
섬유화공	241	62,430	220	45,270	14.5
잡화음식료	278	69,020	245	48,931	15.7
기타	608	146,345	532	95,410	30.6
계	1,841	459,104	1,607	311,856	100.0

지역별로는 경기 961억원(30.8%), 서울 357억원(11.5%), 인천 22억원(7.0%) 등 수도권 중소기업에 1,534억원(49.3%)을 지원하였으며, 경북지역에 8.0%(251억원)을 집행하는 등 비수도권에서 1,585억원(50.7%)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232	60,885	203	35,700	11.5
인천	161	34,950	136	21,580	7.0
경기	548	142,169	481	96,110	30.8
부산	90	24,290	83	18,536	6.0
대구	92	15,560	85	11,800	3.8
광주	45	11,350	38	8,200	2.6
대전	42	8,950	33	4,980	1.6
울산	53	16,250	45	11,585	3.7
강원	22	5,000	22	4,700	1.5
충북	83	23,400	65	15,730	5.0
충남	71	19,220	56	10,030	3.2
전북	64	14,850	60	12,010	3.9
전남	50	12,800	48	10,700	3.4
경북	111	32,010	104	25,085	8.0
경남	164	33,870	136	22,250	7.1
제주	10	2,350	9	1,860	0.6
세종	3	1,200	3	1,000	0.3
계	1,841	459,104	1,607	311,856	100.0

종업원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전체 지원업체수의 96.8%(1,555개), 총 지원금액의 94.9%(2,96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 미만	523	74,346	32.6	23.8
5 ~ 20인 미만	768	152,800	47.8	49.0
20 ~ 50인 미만	264	68,890	16.4	22.1
50 ~ 100인 미만	43	12,720	2.7	4.1
100 ~ 300인 미만	7	2,600	0.4	0.8
300인 이상	2	500	0.1	0.2
계	1,607	311,856	100.0	100.0

2015년 일시적경영안정지원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메르스피해 자금 포함)

2015년 일시적경영안정지원자금 지역별 지원실적

2015년 일시적경영안정지원자금 총괄 지원실적

2015년 일시적경영안정지원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2015년 일시적경영안정지원자금 종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일반경영안정지원은 직접대출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대출금액 3,119억원 중 99.5%, 즉 3,104억원을 신용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구분	직접대출		
	신용	기타	계
담보별	310,426	1,430	311,856

③ 제도개선사항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지원을 2015년 재도입 후 중소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였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①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00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에는 1,673개사에 3,5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단위: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50,000	2,008	657,399	1,673	350,000

업종별 지원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1,495억원(42.7%), 섬유·화학 549억원(15.7%), 전기·전자 500억원(14.3%) 순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72.7%인 2,544억원이 지원되었다.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734	252,324	641	149,510	42.7
섬유화학	287	98,630	246	54,870	15.7
전기전자	328	104,723	260	50,005	14.3
잡화음식료	267	93,570	213	47,697	13.6
기타	392	108,152	313	47,918	13.7
계	2,008	657,399	1,673	350,000	100.0

지역별로는 경기도 766억원(21.9%), 서울에 410억원(11.7%)이 지원되는 등 수도권에 총 1,322억원(37.8%), 수도권 외 지역에 2,178억원(62.2%)이 지원되었다.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349	103,418	264	40,950	11.7
인천	96	30,988	73	14,715	4.2
경기	439	154,592	367	76,585	21.9
부산	136	38,823	113	22,545	6.5
대구	76	26,655	71	18,355	5.2
광주	87	28,367	63	13,290	3.8
대전	71	20,180	59	10,650	3.0
울산	56	21,904	44	12,600	3.6
강원	32	11,303	29	7,550	2.2
충북	102	37,668	94	25,300	7.2
충남	109	35,572	91	20,750	5.9
전북	70	20,230	60	11,800	3.4
전남	78	20,301	68	12,510	3.6
경북	129	46,360	123	30,850	8.8
경남	164	56,244	140	28,650	8.2
제주	10	2,994	10	1,500	0.4
세종	4	1,800	4	1,400	0.4
계	2,008	657,399	1,673	350,000	100.0

2015년 일시적경영안정지원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201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201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총괄 지원실적

201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역별 지원실적

기술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1,749억원(50.0%),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술 644억원(18.4%),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술 421억원(12.0%)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백만원, %)

201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유형별 지원실적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281	64,447	16.8	18.4
특허/실용신안/저작권	874	174,943	52.2	50.0
Inno-biz	113	29,590	6.8	8.5
기업부설연구소	215	42,130	12.8	12.0
벤처기업	135	26,450	8.1	7.6
공인 인증 및 평가기술	12	2,195	0.7	0.6
기술이전	10	1,825	0.6	0.5
Main-Biz	33	8,420	2.0	2.4
계	1,673	350,000	100.0	100.0

중업원 규모별 지원 실적을 보면, 중업원 수 50인 미만의 기업에 3,057억원(87.4%)을 지원하여 소기업 위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인 미만 소기업 지원금액이 1,976억원(56.5%)에 이르고 있다.

(단위 : 개, 백만원, %)

201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업원 규모별 지원실적

구분	업체수	금액	비율	
			업체수	금액
5인 미만	290	35,408	17.3	10.1
6 ~ 20인 미만	857	162,238	51.2	46.4
21 ~ 50인 미만	406	108,012	24.3	30.9
51 ~ 100인 미만	94	33,672	5.6	9.6
101 ~ 300인 미만	25	10,170	1.5	2.9
300인 이상	1	500	0.1	0.1
계	1,673	350,000	1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기술개발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 금융권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기술개발기업에 신용대출(3,173억원, 90.7%)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육성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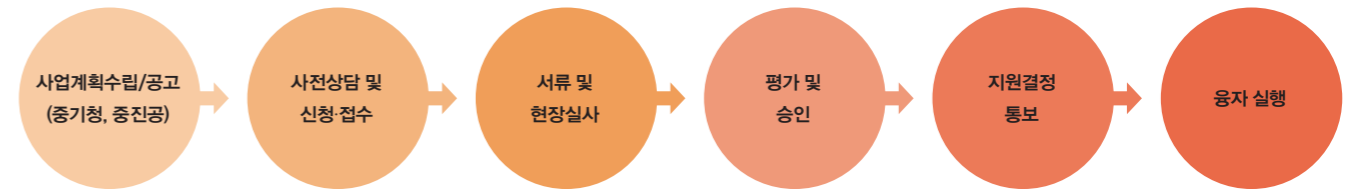
201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구분	신용	보증서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계
담보별	317,288	8,395	22,167	2,150	350,000

③ 제도개선사항

연구개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Main-Biz기업, 벤처기업을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화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특허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하는 특허담보대출은 2014년 162억원에서 2015년 222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참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추진체계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미래성장가치와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익공유형 대출과 성장공유형 대출이 있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2012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24개사에 1,000억원을 지원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	신청		대여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이익공유형 대출	75,000	468	118,909	380	67,350
성장공유형 대출	25,000	69	54,850	44	32,650
계	100,000	537	173,759	424	100,000

2015년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총괄 지원실적

가. 이익공유형 대출

① 사업개요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이익연동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에는 380개사에 67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절감 및 담보부담 해소를 통해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일조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67.7%,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32.3%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금속, 잡화음식료, 섬유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122	32,393	105	20,281	30.1
섬유화학	67	18,338	53	10,180	15.1
전기전자	33	7,536	26	4,524	6.7
잡화음식료	72	16,670	62	10,612	15.8
기타	174	43,972	134	21,753	32.3
계	468	118,909	380	67,350	100.0

2015년 이익공유형 대출 업종별 지원실적

지역별로는 경기도 17.2%, 경남에 11.3%순으로 지원하였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69.8%(4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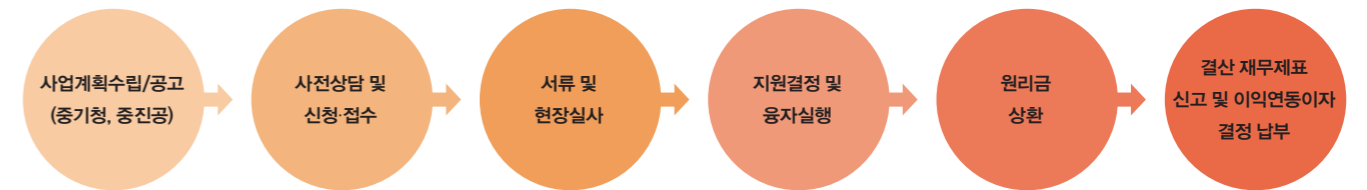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56	16,045	44	6,720	10.0
인천	18	5,002	12	2,000	3.0
경기	90	22,540	74	11,600	17.2
부산	49	11,107	37	6,400	9.5
대구	12	3,750	12	3,100	4.6
광주	20	5,250	13	2,650	3.9
대전	13	3,080	9	1,250	1.8
울산	12	3,150	8	1,800	2.7
강원	28	5,240	25	3,600	5.3
충북	27	6,500	22	3,970	5.9
충남	12	3,200	9	1,950	2.9
전북	22	6,530	18	4,030	6.0
전남	18	4,660	15	2,880	4.3
경북	33	8,838	32	6,111	9.1
경남	47	11,367	40	7,589	11.3
제주	10	2,250	9	1,400	2.1
세종	1	400	1	300	0.4
계	468	118,909	380	67,350	100.0

2015년 이익공유형 대출 지역별 지원실적

③ 제도개선사항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 기업으로 제한하여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였고, 대출 초기 과도한 이자납부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도별 이자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참고> 이익공유형 대출 사업추진체계



나. 성장공유형 대출

①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대출방식으로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에는 44개사에 327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74.3%,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25.7%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금속, 섬유화학, 전기전자, 잡화음식료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기계금속	20	17,400	13	10,000	30.6
섬유화학	11	9,100	9	7,400	22.7
전기전자	8	6,800	6	4,250	13.0
잡화음식료	5	3,100	4	2,600	8.0
기타	25	18,450	12	8,400	25.7
계	69	54,850	44	32,650	100.0

2015년 성장공유형 대출 업종별 지원실적

2015년 성장공유형 대출 지역별 지원실적

지역별로는 서울에 27.8%, 경기도에 21.7%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에 46.7%(152억원)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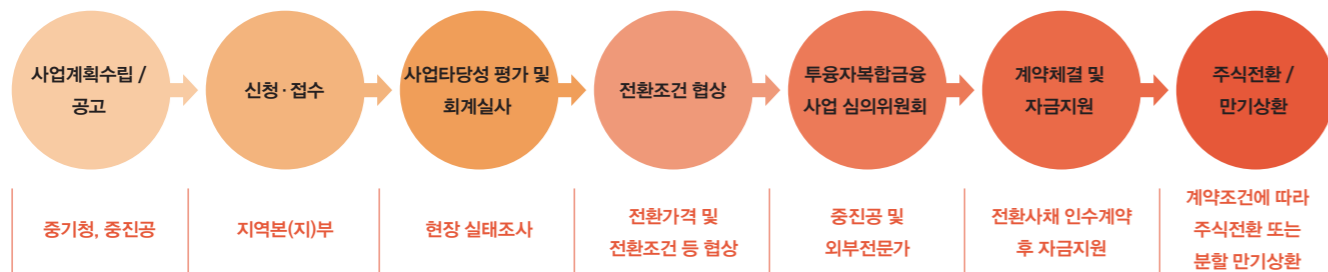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비율
서울	25	19,290	13	9,100	27.8
인천	2	1,200	2	1,250	3.8
경기	11	9,700	9	7,100	21.7
부산	1	1,000	1	1,000	3.1
대구	3	2,100	2	1,400	4.3
광주	2	900	-	-	-
대전	2	1,500	2	1,300	4.0
울산	1	1,000	1	1,000	3.1
강원	3	1,800	2	1,300	4.0
충북	3	2,400	1	600	1.8
충남	3	2,500	2	1,500	4.6
전북	5	4,960	2	1,600	4.9
전남	1	1,000	1	1,000	3.1
경북	3	2,100	3	2,100	6.4
경남	2	1,400	2	1,400	4.3
제주	-	-	-	-	-
세종	2	2,000	1	1,000	3.1
계	69	54,850	44	32,650	100.0

③ 제도개선사항

심사업무절차를 간소화(기존 : 1차평가, 예비심사, 2차평가 → 개선 : 1차평가로 통합)하여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였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투자심사업무를 광역본부의 기술경영전문센터로 이관하여 집중 처리함으로써 전문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참고> 성장공유형 대출 사업추진체계



사업전환지원자금

가. 사업전환지원

① 사업개요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용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추진현황

2006년 9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5년까지 총 1,729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여 2,421개사에 12,766억원의 자금을 집행하였다. 2015년에는 99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225개 업체에 1,026억원을 지원하였다.

(단위 : 억원, 개)

예산	신청액	직접대출		대리대출		계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업체수	대여액
1,026	1,287	185	642	40	384	225	1,026

2015년 사업전환 지원자금 총괄 지원실적

사업전환 승인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종추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업체 99개사 중 90.9%인 90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업종전환은 9.1%인 9개사이다.

세부업종별 승인실적을 살펴보면 유통(29개, 29.3%), 기계·금속(28개, 28.3%), 기타(17개, 17.2%), 화공(10개, 10.1%)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23개, 23.2%), 서울(17개, 17.2%), 경북(13개, 13.1%), 전북(8개, 8.1%)의 순서로 승인업체가 분포되었다.

● 유형별 승인실적

유형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계
업체수	90	9	-	99
비율(%)	90.9	9.1	-	100.0

* 2012년 산업위 예산 심의시 단순 품목 추가는 제외하라는 지적에 의거 추가유형 삭제

2015년 사업전환계획 승인실적

● 업종별 승인실적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	화공	섬유	잡화	유통	식료	기타	계
업체수	28	9	-	10	2	4	29	-	17	99
비율(%)	28.3	9.1	-	10.1	2.0	4.0	29.3	-	17.2	100.0

● 지역별 승인실적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17	7	23	8	1	3	2	2	1	6	1	8	1	13	6	-	99
비율(%)	17.2	7.1	23.2	8.1	1.0	3.0	2.0	2.0	1.0	6.1	1.0	8.1	1.0	13.1	6.1	-	100.0

또한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기업의 신속한 유류자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 성공사례집 제작 및 사업광고, 기획홍보 기사 보도 등을 통해 사업전환사업의 활성화와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나. 무역조정지원

1 사업개요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실한 경우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사업추진현황

무역조정지원센터는 2007년 4월 사업 개시 이후 2015년까지 82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약 312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다. 2012년 7월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무역피해 사실입증서 등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중진공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2013년부터 모든 신청기업에게 신청 상담, 신청서 작성지원, FTA피해 입증까지 순단계에 걸친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무역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FTA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인정된 업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등 FTA피해 기업 발굴에 노력한 결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융자지원이 증가하였다.

(단위 : 업체수,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무역조정 기업지정	2	3	2	0	8	24	26	17	82
융자지원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9,360	31,214

신문·옥외광고와 리플렛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FTA 확대에 대비하여 기업이 무역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융자지원실적

재창업자금

1 사업개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5년도에는 466개 업체에 700억원을 집행하였다.

2 사업추진현황

2015년도 재창업자금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집행실적이 전년(376개업체, 512억원)대비 36.7% 향상되는 등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제공 하였다.

(단위 : 개, 백만원)

예산	신청		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0,000	611	159,042	466	70,000

2015년 재창업자금 총괄 지원실적

담보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700억 중 직접대출 지원액이 94.4%(661억원)이고 이 중 신용 대출이 86.4%(571억원)으로 기술·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재창업기업이 원활히 재기를 추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담보별	3,932	57,107	1,813	7,148	66,068	70,000

2015년 재창업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신청자격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법원의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자, 사업실패로 인한 자금 애로를 겪고있는 자' 등의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이 중 '저신용자 및 파산·회생자'에 대한 지원이 77.2%를 차지하여 과거 사업실패 이력에 따라 민간 금융권 이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재창업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적극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개사, 백만원, %)

신청자격	업체수	대출금액(B)	비율(B/A)
저신용자(7등급이하)	195	33,856	48.4
파산·회생	154	20,132	28.8
자금애로(5,6등급)	92	13,324	19.0
신용불량	25	2,688	3.8
계	466	70,000(A)	100.0

2015년 재창업자금 신청자격별 지원실적

업력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예비창업자 포함) 38.2%, 3년 미만 39.7% 등 재창업 초기기업 위주로 지원 함으로써, 창업초기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개사, %)

구분	예비재창업자	1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계
업체수	21	157	185	103	466
비중	4.5	33.7	39.7	22.1	100

2015년 재창업자금 업력별 지원실적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60%로 비제조업에 비해 높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15.7%), 기계 (15.4%), 유통(13.5%), 잡화(10.7%) 등의 순으로 지원비중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 고르게 지원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개사, %)

구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화학	잡화	식료	정보	유통	기타	계
업체수	72	73	27	20	16	35	50	38	33	63	39	466
비중	15.4	15.7	5.8	4.3	3.4	7.5	10.7	8.2	7.1	13.5	8.4	100

2015년 재창업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③ 제도개선사항

재기업인의 도전적인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실실패 시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을 도입하였고, 자금 승인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주)과의 협업을 통해 이행보증보험 발급을 지원하였으며, 재창업기업 전용 진단모듈을 개발을 통한 사후진단 실시 등 재창업 성공기반을 강화하였다.

구조개선전용자금

① 사업개요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하여 폐업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전자금에 한해 2015년 신설되었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 1월 신규 사업으로, 2015년 총 167개사에 3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다.

(단위 : 억원)

예산	신청액	지원결정액	대여업체수	대여액
300	512	306	167	300

2015년 구조개선전용자금 총괄 지원실적

신청요건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의미하는 중진공 예비경보기업, 신보 경쟁력향상프로그램 요건 충족기업, 기보 경영개선보증지원 결정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한 경영개선진단 기업 비중이 60.1%(180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위기기업을 진단하고 향후 운영 방향(구조개선·회생 등)을 제시하는 진로제시컨설팅 연계 지원이 30.5%(91억원), 워크아웃 및 신용불량·회생인가 기업이 4.8%(14억원) 순이었다.

(단위 : 개, 백만원, %)

지원대상	신청		대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경영개선진단	96	250	92	180	60.1
워크아웃, 신용불량·회생인가	21	86	10	14	4.7
보증기관 추천	9	18	9	14	4.7
진로제시컨설팅	63	161	56	91	30.5
계	189	515	167	299	100.0

2015년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요건별 지원실적

업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지원 비중이 84.3%, 정보 및 유통 등 기타 업종이 15.7%로 제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부업종별로는 기계금속이 35.7%로 가장 높고, 잡화음식료 22.3%, 섬유화학 13.7% 순이었다.

(단위 : 억원)

구분	신청		대여업체수		비중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기계금속	64	156	59	107	35.7
전기전자	21	63	18	38	12.7
섬유·화학	27	77	23	41	13.7
잡화음식료	42	128	36	67	22.3
기타	34	88	31	47	15.6
계	188	512	167	300	100.0

2015년 구조개선전용자금 업종별 지원실적

담보별 지원현황을 보면 구조개선전용자금 총 300억원 지원액 중 신용대출이 98.3%(295억원), 부동산 담보 대출이 1.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담보가 부족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수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대상업체 특성에 기인한 다. 제도적으로 대리대출 방식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계
담보별	29,500	-	500	30,000

2015년 구조개선전용자금 담보별 지원실적

③ 제도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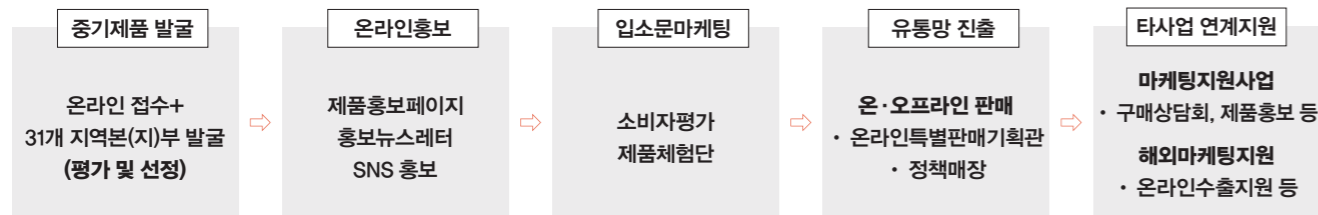
업무효율화를 위해 신·기보와의 공동진단 프로세스를 폐지하고 단독심사 및 지원이 가능토록 개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처리기간이 약 20일 단축되었다.

마케팅·글로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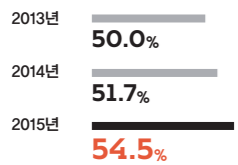
중소기업거래지원(HIT500)

HIT500이란 자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시장진입 초보 중소기업 유망 제품을 발굴하여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마케팅과 판로지원을 통해 제품의 시장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중기제품을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한 후, 웹사이트 내 제품 홍보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전시장 구성, 소비자 평가와 제품 체험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업초기(3년 미만)발굴 비율



특히 2015년의 경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협업하여 마케팅교육을 추진하고,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유통망 진출을 집중 지원하였다.

HIT500사업에 선정된 유망제품은 국내 정책매장(행복한백화점 등 15개)과 온라인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내 HIT500제품 특별판매기획관 운영 등 판매 지원을 통해 2015년 3,471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내수 마케팅지원 사업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단위 : 건)

HIT500사업 선정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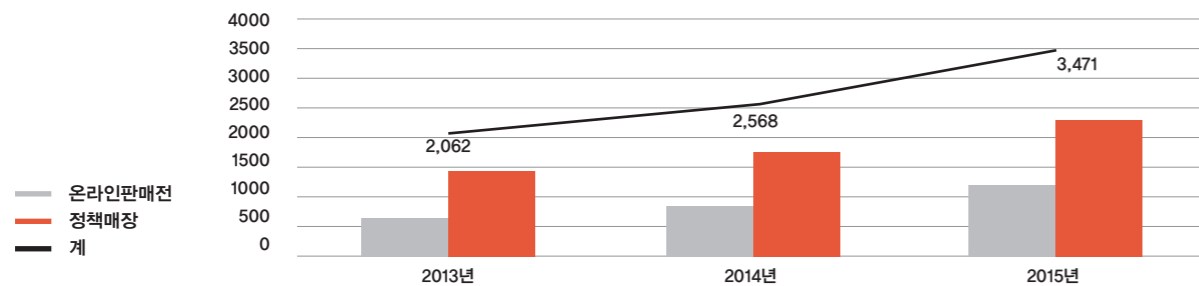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HIT500(제품선정수)	510	511	327*	319

* 2014년부터 유망제품 선정이후 지원강화를 위해 제품 선정규모 축소

HIT500사업 유통망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온라인판매전(직접판매)	정책매장(연계판매)	계
2013년	643	1,419	2,062
2014년	795	1,773	2,568 (24.5% ↑)
2015년	1,197	2,274	3,471 (35.2% ↑)



스마트제품 발굴지원사업

스마트제품발굴지원사업은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테스트를 거쳐 대기업 제품·고가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제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제품은 온라인 테스트판매전, 오프라인 정책매장 우선 입점 등 판로지원과 언론 기획보도, 지하철 역사광고와 같은 홍보지원 등 다양한 후속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제품 발굴사업 운영 체계도



2013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추진(2012년도 시범사업 운영)하여 2015년도 사업종료 이전까지 블랙박스, 물티슈, 학생용 의자 등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34개 품목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82개를 발굴 및 홍보하여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환영받는 중소기업 제품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CEO 및 직원을 대상으로 친소비자경영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이끄는 ‘착한생산운동’을 추진하였다.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사업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사업은 해외 유수의 유통망에 B2C(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미흡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해외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중진공에서 해외진출 관련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유통망 진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우수제품(Made in Korea)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사업은 국내생산 우수제품의 DB를 구축 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상품의 현지화를 위한 코칭·실행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해외 물류 및 A/S센터 운영, 해외전시판매장 운영, 유통망 형태별 직접진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 및 현지 유통망과 연계하는 안테나숍 역할을 하는 해외전시판매장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3개국 5개소에 설치·운영되어 총 518개사 2,251개 품목 입점을 지원하였다.

(기준 : 2015.12월)

구분	미국		중국		베트남 호치민
	뉴저지	LA	베이징	정저우	
개소	2012.12	2013.11	2014.1	2014.12	2014.12
위치	Westfield Garden State Mall	LA Beverly Hills 지역	롯데마트 공익서교점	데니스 쇼핑몰	롯데마트 면빈점
입점	102개사 266개 품목	168개사 240개 품목	136개사 786개 품목	69개사 447개 품목	43개사 512개 품목

해외 유통망 직접진출 프로모션으로는 홈쇼핑 진출지원, 상품판촉전, 바이어초청상담회 등 해외유통망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하여 소비자 직접판매 12억원, 연계판매 114억원, 프로모션 15억원 등 2015년 한 해 총 141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2013년 사업시행 후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기반 구축 시기를 거쳐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상품소싱시스템 개편, 사업 및 수행기관, 해외전시판매장 관리체계 개편 등 사업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매출 및 글로벌화 진출 성과 확대를 이루었다.

중소기업제품 전용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현황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5백만불~5천만불 미만의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마케팅·R&D·금융 집중지원을 통해 5천만불 이상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별도 선정한 프로그램 수행사를 활용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역량진단을 통해 기업 내 핵심기술력 및 마케팅 역량에 대해 진단하고 기업의 맞춤형 성장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세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총 9개의 온·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2015년에는 사업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3건의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며, 기업당 지원한도(기존 3년간 1억원)를 3년간 2억원으로 확대·시행하였다.

구분	2014년 (8개 프로그램)	2015년 (9개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	글로벌브랜드 개발 기업홍보 동영상제작 글로벌 경영컨설팅 新 마케팅 프로모션 해외전시회 참가 제품 및 외국어포장 디자인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퇴직무역인력 활용 자문 서비스	글로벌브랜드 개발 기업홍보 동영상제작 글로벌 경영컨설팅 新 마케팅 프로모션 해외전시회 참가 제품 및 외국어포장 디자인 단체수출보험 (신규) 해외 세일즈랩 (신규) 수출제품 IP전략 수립 (신규)
필수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역량진단

2015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개선현황



개선된 세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외 전시회 99건, 신 마케팅 프로모션 58건,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52건 등 총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329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수출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워크숍을 1회 실시하였다.

지원 연도	지원 기업수	세부 프로그램(건)									총계 (건)
		브랜드 개발	동영상	해외 전시회	新 마케팅	글로벌 경영 컨설팅	제품 디자인	단체 수출 보험	해외 세일즈랩	수출 IP전략	
2015년	157	11	52	99	58	9	13	44	32	11	329

글로벌강소기업 지원내역

온라인수출지원

온라인수출지원(Gobizkorea)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상품페이지 제작을 통한 글로벌 홍보마케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및 검색엔진 마케팅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1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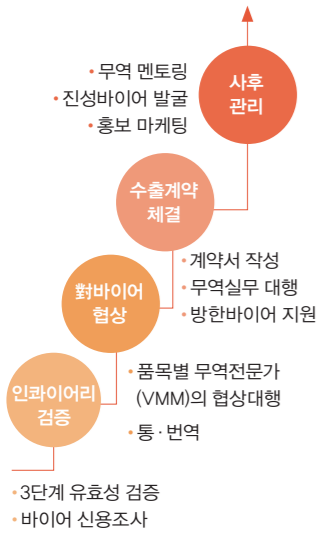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 및 상품페이지 제작, 무료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Gobizkorea(www.gobizkorea.com)를 기반으로 43,186개사 176,333개 상품정보를 DB화하여 국내상품 소싱을 원하는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간의 해외거래 네트워크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1,231개사의 상품페이지 제작과 130개사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총 16,346천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2 해외 홍보마케팅 및 사후관리 지원

온라인 무역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홍보마케팅과 글로벌마케팅 교육, 수출상담회도 진행하였다. 구글, 야후 등 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해외 유명포탈사이트에 검색엔진최적화(SEO)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상위노출시킴으로써 신규바이어를 발굴하는 검색엔진마케팅 지원사업을 60개사에게 지원하였다.

구매오퍼 사후관리 사업



프랑스어관 신규 구축

또한 2015년에는 신홍시장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어 맞춤형정보를 현지어로 제공하는 온라인수출관에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프랑스어관을 신규 추가 구축하여 총 7개관을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신홍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울러, 고비즈코리아 등을 통해 내도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 오퍼 대응 애로 해결을 위해 「인콰이어리 검증·바이어 협상·수출계약 체결·사후관리」까지 무역 전 단계를 지원하는 구매오퍼 사후관리 사업을 신규추진하여 총 13,414건의 사후관리 실적을 달성하였다.

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과 구매오퍼 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2015년 총 4,648만불의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전년대비 100%(2014년 2,327만불) 증가한 추진성과를 달성하였다.

세부사업명	실적(건수)	수출실적(US천불)
상품페이지 제작	1,231	12,855
홈페이지 제작	130	3,491
검색엔진마케팅	60	3,264
온라인수출관	807	12,452
구매오퍼사후관리	13,414	14,423
계	15,642	46,485

2015년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지원실적

글로벌바이어 국내알선 지원사업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은 특정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에게 해당 상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 및 알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Gobizkorea 영문사이트를 통해 해외바이어의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한다.

2006년 중소기업수출경쟁력 강화대책(안)으로 시작되어, 2008~200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수출 실적 42백만불, 2013년 49백만불에 이어 2014년에는 53백만불, 2015년에는 56백만불의 수출실적을 창출하였다.

중진공 지역본·지부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 해외바이어가 상품매칭을 원하는 최적의 중소기업을 발굴, 매칭하는 해외바이어알선을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담을 위해 방한하는 해외바이어에게 중소기업 동반방문, 통역, 무역상담, 추가 제품소싱 등을 후속 지원하는 방한바이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였다. 방한하는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현장미팅 총 132건에 대하여 거래조건, 견적, 벤더등록 등 구체적인 협상 진행을 지원하였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바이어알선	521건	1,218건	1,380건	1,506건	1,706건	1,908건	2,034건
방한바이어 지원	-	29건	107건	122건	130건	130건	132건
수출초보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60개사	70개사	70개사	70개사
수출실적	11,413 천불	30,203 천불	35,501 천불	42,042 천불	49,018 천불	53,030 천불	56,422 천불

특히, 정부정책 목적성에 부합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초보기업 해외바이어발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HIT500 참여기업, 해외유망망 입점기업,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참여기업 중 수출초보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홍보를 통한 바이어 연계, 유효인콰이어리 발굴, 무역실무 지원 등을 지원하였다.

해외바이어알선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수출성사율을 제고하였으며 사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바이어 대응전략 교육, 온라인 무역상담실 운영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개발 및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재구매 바이어에 대한 재구매 프리미엄 제공, 구매중단 바이어 대상 재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기존 해외바이어의 재구매를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바이어 등급관리를 체계화하였으며 뉴스레터 발송, SNS활용, 미디어 파트너십 구축 등 바이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가명	거래성사건수	거래성사 금액(천불)
일본	4	2,500
오스트레일리아	1	1,500
중국	3	530
대만	7	511
싱가포르	3	500
기타	29	1,158
계	47	6,699

국가별 해외바이어 알선지원(TOP10)

국가명	해외바이어 알선지원 수
홍콩	231
싱가포르	209
미국	201
인도	171
베트남	128
말레이시아	116
중국	78
캐나다	64
이란	56
대만	50
기타	730
계	2,034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실적

국가별 수출초보기업 수출·거래 성사실적(TOP5)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2009년부터 중진공은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지역자치단체, kotra등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해외전시회 31회, 무역사절단 131회, 수출상담회 3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20회 등 총 185회 사업추진을 통해 2,437개사의 94백만불 수출계약체결을 지원하였다.

2015년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상담 및 수출계약 성과

유형	실적		성과		
	횟수	참가기업수	상담금액(백만불)	상담횟수	계약체결액(백만불)
해외전시회	31회	378개	681	14,211	57
무역사절단	131회	1,104개	3,251	14,383	36
수출상담회	3회	195개	34	357	1
지역특화해외마케팅*	20회	760개	-	-	-
계	185회	2,437개	3,966	28,951	94

* 지역특화해외마케팅은 수출상담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상담액 미집계

또한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 참여기업의 77%인 1,880개사를 대상으로 중진공 자금, 연수, 건강진단 등 연계 지원을 통해 수출실적을 제고하였다.

2015년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연계지원실적

사업명	참가업체수(a)	연계지원(건수)				
		정책자금	연수	건강진단	계(b)	연계율(b/a,%)
해외전시회	378	72	238	27	337	89%
무역사절단	1,104	224	588	84	896	81%
수출상담회	195	46	143	17	206	106%
지역특화	760	107	298	36	441	58%
계	2,437	449	1,267	164	1,880	77%

수출컨소시엄 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 관련 업종간 컨소시엄(10개사 내외)을 구성해서 사전시장조사, 시험·인증 및 메뉴 업체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지화 컨설팅, 공동브랜드 제작, 현지마케팅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2015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추진현황

No	수행사	품목	업체수	진출시장	컨소시엄 활동
1	비주얼 라인	화장품, 식품	6	중국 (시안, 정저우)	현지 전시회 참가, 바이어 상담회 실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백화점 판촉 행사 연계 등
2	심양진안 클러스터	화장품, 생활용품	5	중국 (요녕성)	백화점, 쇼핑센터 등 보세구역 거점 판매 및 홈쇼핑 진출 등
3	제이앤 아이 글로벌	식품 및 가공식품	8	중국 (청도, 시안, 상해)	온라인 타오바오 테스트 마케팅, 자체쇼핑몰 판매 지원 및 티몰 온라인 판권 확보 등
4	두손 인터내셔널	공작기계 관련제품	9	중국 (남통, 상해, 대만, 일본)	제품 BI(Brand Identity) 통한 전략수립, 3개국 순회 상담회 등

No	수행사	품목	업체수	진출시장	컨소시엄 활동
5	티쿤글로벌	온라인 해외 직판품목	7	일본	일본시장 대상 온라인쇼핑몰 구성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6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화장품, 식품 등	9	싱가폴 및 인도네시아	싱가폴 쇼핑몰내 홍보관 설치 판매 행사, 아세안 바이어 1:1 수출상담회 동반 개최 등
7	SMBL	영-유아 용품	6	베트남	현지 페이스북 개설 및 온라인 홍보 진행, 바이어매칭 및 수출상담회 실시
8	INTRAGO	건축자재	9	인도	해외구매사이트 개설 및 온라인 입점,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등
9	LPR Global	산업용 부품-장비	11	미국, 캐나다	조인트 프로젝트, 1:1전화 마케팅, 전시회 참가, 기술포럼 진행 등
10	애니 캐스팅	LED 조명제품	7	캐나다	유망 바이어 업체 방문,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
11	중진공 유통망진출 지원센터	생활 소비재	10	미국	Big Buyer 전문 전시회 참가지원, 온라인 홍보 및 공동마케팅 지원 등
12	Eukom	미용 및 건강 관련 제품	10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등)	공동브랜드 론칭 및 전시 상담회 참가, 온오프라인 유통망 구축 등
13	인터문디엔	자동차 부품	7	유럽 (독일)	독일자동차 애프터마켓 유통망(헝스텐베르크) 및 현지바이어 방문상담, 전시회 참가 등
14	Design Kims	화장품	7	터키	자체 온라인쇼핑몰 홍보판매 및 현지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현지 멀티샵 진입 지원 등
15	KEC	의료기기	14	러시아 및 CIS 국가	지역별 의료세미나 및 1:1수출상담회 진행, 현지 조달시장 진출방안 교육 등
16	NURKAZ	의료, 건강, 미용 기기	10	카자흐스탄 및 CIS국가	의료, 건강 박람회 참가, 쇼룸 및 체험관 운영, AS센터 역할, 현지인증 취득 및 수출입 통관 대행 등
계	16건	-	135	-	-

2015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추진현황

2015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요 추진실적

구분	지역 및 행사	추진실적
온라인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온라인 쇼핑몰 중국 B2C, B2B 상품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사 개별 해외직판쇼핑몰 구축·운영 알리바바, 티몰 입점, 바이두(검색엔진) 활용 온라인 마케팅
전시회 및 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자흐스탄 KIHE 의료전시회 일본 오사카 M-TECH 중국 상하이 KOMAF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싱가포르 화장품·식품 품평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사 공동부스 운영, 300명 이상 방문 경남 공작기계 업체 참여(6개사) 한국관 설치, 중국 고객사 공장 방문 B2B 수출상담회 및 시연회(10개사) 유러바이어 초청 화장품·식품 품평회 (9개사 참여)
상설매장·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심양 홍보관 설치 요녕성 정부와 제휴마케팅 싱가포르, 홍콩 행사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관·상설매장을 통한 시장조사 테스트 비즈니스센터 공동운영 코리아 페스티벌(싱가포르 최대 한류행사) 및 홍콩푸드페스티벌 참여 (15개사)
대형유통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홈쇼핑 진출 중국 시안 한국관 활용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MD, 수입번더 대상 제품설명회 및 상담회 중국 데니스 백화점 내 화장품 전시 홍보 및 상담 진행
기술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장비부품 인도 현지 파트너사 발굴 및 북미·캐나다 현지기업 기술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더등록(3개사), 공장방문(7회), 설치지원(6회) 및 바이어 한국 공장 방문(2회)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최근 4개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지방은 15% 이상)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자율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499개 업체에 총 244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해 핵심기술력 및 마케팅 역량에 대해 진단평가하고 직접 작성한 수출마케팅계획서를 발표·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총 7개의 지정 프로그램 및 해외전시회, 마케팅인력 신규채용 등의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등 기업의 자율적 수출마케팅을 지원한다.

2015년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세부 프로그램

구분	년도	2015년 (7개 프로그램)
지정 프로그램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홍소핑 및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글로벌브랜드 개발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제작 해외상품홍보 포장, 제품디자인 개발 및 브로셔, 카탈로그 제작
자율 프로그램		해외전시회 참가, 마케팅인력 신규채용, 수출교육 등 자율
필수		글로벌 역량진단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한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2015년 국가수출증가율 -7.9% 대비 고성장기업 수출증가율은 3.91%로 약 10.0%p를 초과하는 수출실적 달성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 내수기업 100개사 중 31%의 첫 수출 성공을 도왔다. 또한 고용분야에서는 229명의 수출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국가고용창출에도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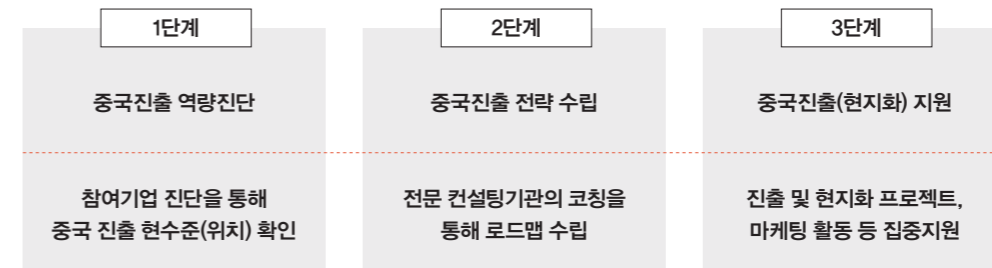
고성장기업은 대내외적으로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지원에 힘쓰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책융자인 고성장기업전용 자금 87,745백만원을 89개사에 융자지원하였으며, 내일채움공제 가입지원을 통해 총 89개사가 389명의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청 R&D 10,100백만원 연계지원, 한국무역협회와 퇴직무역인력채용 연계홍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기업공개(IR) 세미나 개최 지원 등 고성장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지원을 노력하였다.

2015년 고성장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실적

구분	실적	비고
수출증가율	3.91%	2015년 국가평균 : -7.95%
수출액	958백만불	499개사
첫수출성공	31%	내수기업 100개사 중 31개사
수출전문인력	229명 신규채용	3,099백만원 지원
연계지원	89개사, 87,745백만원	정책융자
	89개사, 389명	내일채움공제 가입
	48개사, 10,100백만원	R&D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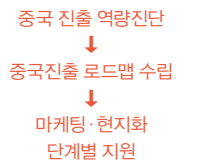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은 중국진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중국 진출 역량진단 및 로드맵 수립, 현지화 지원을 통해 중국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7월 중국 내수시장 진출방안(2013.9월)의 후속조치로 시작하여 2015년 76개사를 선정하였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을 위한 기업 BI, CI 개발 및 카탈로그 제작 등 디자인 개발 29개사, 세무·회계 및 조인트벤처 투자 등 현지 진출 법률자문 20개사 등 지원을 통해 2015년 12월 말 현재 528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 운영 체계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완료했거나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컨설팅 → R&D 기술개발 → 수출마케팅'에 이르는 One-stop 지원을 통해 R&D 성공제품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53개 업체에 총 18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및 기업·연구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R&D에 성공한 R&D완료기업,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R&D 예정기업을 Two-track으로 지원한다.

참여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R&D 기획컨설팅(예정기업 대상)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완료기업 대상)을 필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수립된 전략에 따른 자율참여형 마케팅 프로그램(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등을 지원하였다.

(단위 : 개사, 천원)

Track명	지원프로그램	지원기업 수	지원금액
R&D 예정	R&D 기획컨설팅	22	404,167
	해외시장조사	13	122,873
R&D 완료	해외진출 로드맵수립 컨설팅	28	664,123
	바이어 발굴	16	133,942
	수출마케팅(해외전시회)	28	382,301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기업 Two-track 지원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

중소기업 남북협력지원사업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대북진출 상담 및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자금, 컨설팅, 연수, 정보제공 등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단계별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7개사를 선정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지원하였고,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 주재원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법인장 및 관리자 경영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교육기회가 부족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과 관리자에게 현장 중심의 실천형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까지		2015년		누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북한내륙지역	24	10,870	-	-	24	10,870	
개성공단	협동화	24	10,285	-	-	24	10,285
	개별	79	58,557	7	3,000	86	61,557
	소계	103	68,842	7	3,000	110	71,842
계	127	79,712	7	3,000	134	82,712	

2015년 대북진출기업 자금지원실적

FTA대응역량강화사업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FTA수출컨설팅, FTA교육, 글로벌마케팅, 연구,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원산지 확인 및 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수출전문가 등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였다.

또한, 소외지역과 공단밀집지역에서 지역별 FTA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FTA원산지 실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CEO 및 담당자의 FTA활용 의식을 고취하였다. 특히 현장방문 1:1 교육을 통해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시간부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접 방문 및 업체별 담당자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93%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구분	실적	주요 내용
FTA·수출 컨설팅	825개사	FTA원산지확인·증명 및 수출애로 해소
FTA교육	574회, 8,789명	원산지실무, 통관,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FTA에 대한 정보 제공
글로벌마케팅	19개사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브랜드 파워가 강한 FTA체결국 현지기업간의 공동브랜드사업화 (Co-Branding)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 (공동브랜드사업 7개사, 기술사업화 사업 12개사)

FTA대응역량강화사업 주요실적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유수의 민간 컨설팅 회사나 마케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컨설팅 등 현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위한 시장조사와 협력파트너의 발굴, 계약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하며 해외유통망을 확보하고 국제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진출지역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는데 10개월 기준으로 북미, 유럽 등 지역은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중국, 동서남아 등 기타 지역은 기업 당 최대 1,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51개국에 146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지정하였으며, 특히, 전략프로젝트 수행사(94개사)를 선정하여 기술제휴(수출) 지원, 전략적 품목 및 시장 마케팅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시급한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단기 컨설팅(28개사)도 실시하였다.

2015년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은 총 276개사로 수출실적 279백만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사업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리서치기관((주)리서치랩)의 설문조사 결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 전체 만족도는 83.29점이며, 전년(82.97) 대비 0.32점 상승하였다. 2016년부터는 해외민간네트워크 연중 참여기업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2회로 나누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구분	민간네트워크 (개사)	지원기업수 (개사)	수출실적 (백만불)	투자유치 (백만불)	현지법인설립 (개사)	기술협력계약체결 (개사)
2014년	143	285	449	0.33	19	14
2015년*	146	276	279	14.01	17	10

* 2015년 지원성과 : 2015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만족도조사(2016.1월)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실적 (2014년 ~ 2015년)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 현지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을 경감해 주고 조 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이 입차하기 어려운 12~20㎡ 규모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저렴한 비용(1년차 기준 입차료의 80% 정부지 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정착 지원,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지원, 컨설팅 및 상담, 현지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5년 말 기준, 수출인큐베이터는 미국(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시안), 일본(도쿄), 브라질(상파울루),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싱가포르, 멕시코(멕시코시티), 카자흐스탄(알마티) 등 주요 해외교역 중심지 국가에 설치·운영(12개국 20개 소)중에 있다.

수출인큐베이터(BI)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지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러시아	UAE	인도	멕시코	카자흐스탄	계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청두	시안	도쿄	호치민	하노이	상파울루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멕시코시티
입주 규모	18	23	12	23	15	21	14	26	10	7	15	12	11	10	10	6	16	10	7	276

2015년 입주업체의 총 수출실적은 약 6억 6,460만달러로 입주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전보다 5.0% 증가하였다.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성과분석 결과, 매출액은 3.3% 증가, 수출계약 체결건수는 56.2%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입주기업의 경영성과가 제고되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82.1%에 이르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성과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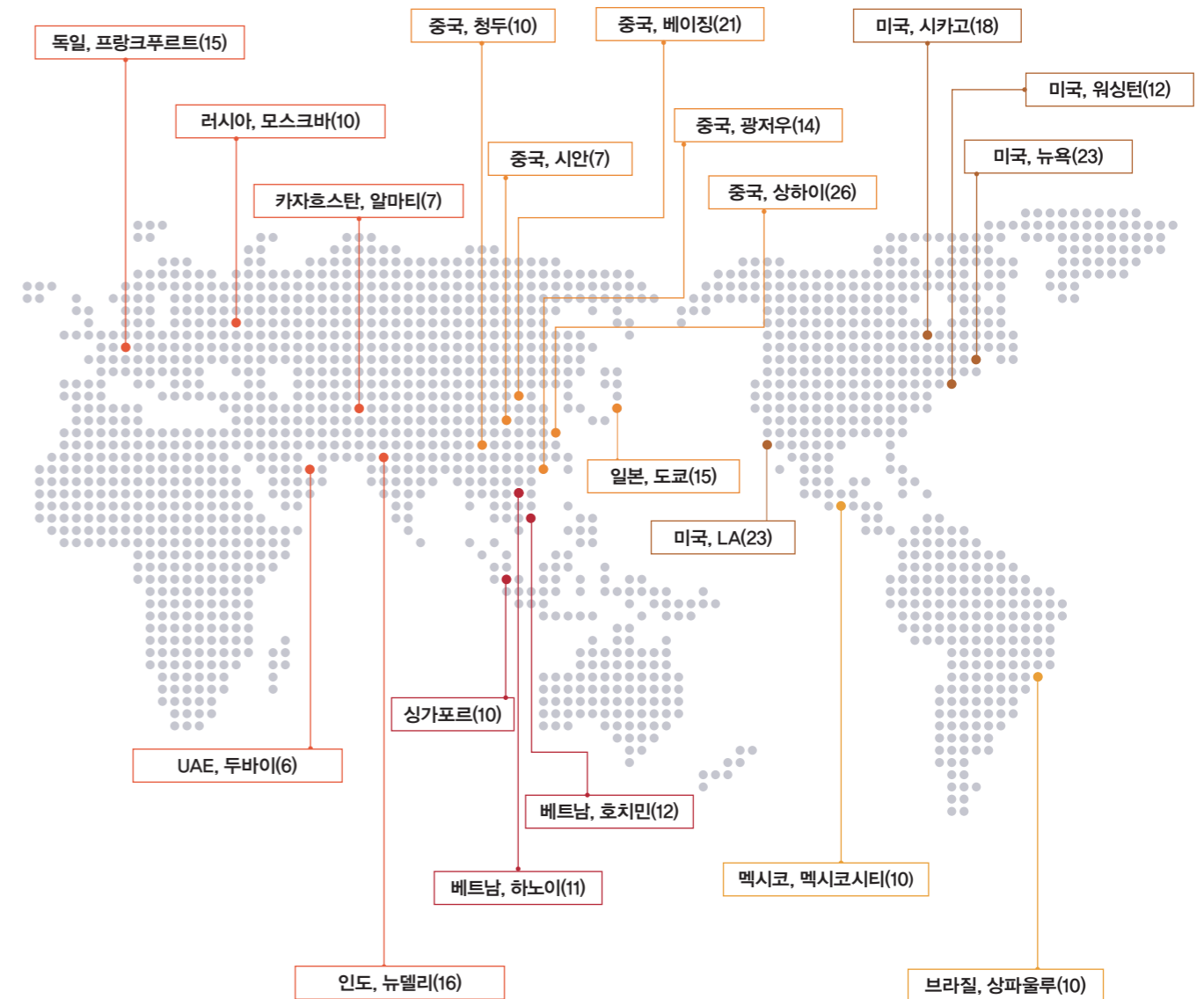
수출인큐베이터(BI) 입주 전/후 기업 성과비교

	입주 전(a)	입주 후(b)	증가율(%) ((b-a)/a*100)
총 매출액 (억원)	137.6	142.2	3.3%
수출상담 건수	40.6	63.9	57.4%
수출계약 체결건수	26.0	40.6	56.2%
수출대상 국가수	11.9	14.8	24.4%
신규 바이어 발굴 건수	6.4	11.8	84.4%

* 출처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기업지식연구원, 2015.12)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운영규모 : 12개국 20개소 276개실

(입주규모)



해외산업협력지원사업

가. 해외산업 협력기반 구축

① 사업개요

중진공은 국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용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41개국 67개 협력 네트워크와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 한 해 동안 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MOU체결(5개국 7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15개국 28명), 해외시장 진출환경 세미나(10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업협력사절단,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지원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

2015년 해외협력기반 조성실적

구분	실적	비고
MOU 체결	7회	인도, 이스라엘, 몽골 등 5개국 7개 기관
산업협력관 교환	28명	인도, 중국 등 15개국 28명 교환
해외진출 세미나 및 설명회	10회	인니말련 활랄시장 진출 세미나 등 10회
산업협력사절단 교환	10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0회

특히, 2015년 10월에 개최된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州) 무역증진, 투자활성화 세미나는 주한 인도 대사관, 인도 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통해 투입비용 없이 행사를 진행하여 예산 절감의 노력도 하였다.

또한, 미주투자공사(IIC)의 예산(\$19,740)을 확보, 에콰도르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진공 건강진단기법 전수 세미나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해 중남미 지역과 협력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격 제고에 일조하였다.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에서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2015년 해외거점 특성화과제 추진실적

구분	특성화 과제	운영 성과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우수 프랜차이즈 중국진출	- 박람회 9개사 27명 참가 - 프랜차이즈 3개 매장 오픈, 5개사 계약 협상 중
코리아데스크	인니·말련 활랄시장 진출 세미나 (활랄 담당 공무원 초청)	- 세미나 : 65개사 73명 참가, 상담 : 28개사 31명 - 참석자 80% 결과 만족(응답률 : 96.9%)

나.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① 사업개요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2005) 공동선언을 통해 APEC 21개 회원국 중소기업 혁신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전담창구이다. 2006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 설립·운영되다가 2009년에 중진공으로 이관되었다.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은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한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차별성이 있는 만큼 거시적으로 한국이 APEC 역내 중소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② 사업추진현황

2015년은 'APEC 역내 중소기업 국제화'를 목표로 역내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역내시장 진출지원을 도모하였다.

특히, APEC 프로젝트 기금 \$104,000을 확보하여 APEC 중소기업 국제화지표 개발 및 적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파악하고 역내 균형발전과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혁신컨설팅을 통해 APEC 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확대 및 강화 지원을 하였다. 또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 참가를 통해 역내 회원국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정보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2015년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실적

협력분야	세부사업명	실적
중소기업간 협력	혁신컨설팅 실시	- 4개국 21개사 - 컨설팅 결과 활용률 93.3%
	APEC 비즈니스 매칭행사 (3월, 광주)	- 국내 중소기업 11개사 지원 - 상담 970건, 예상 계약액 3,551천불
정책전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 장관(1회 : 9월) / 실무그룹(2회 : 6월, 9월)

인력양성

연수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역량 및 경영자 혁신역량 강화,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 및 현장실무 적용능력 배양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역량향상연수, 맞춤형연수, 정책연수, 온라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본원 안산) 개원을 시작으로 2015년 호남연수원(2001년, 광주), 대구경북연수원(2003년, 경산), 부산경남연수원(2004년, 창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2014년, 태백) 등 5개의 지방연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32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교육을 선도하여 총 134만여명 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67,975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중소기업연수원(안산) 46,768명, 지방연수원(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글로벌리더십)은 21,207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비를 활용한 실험·실습 중심의 기술연수를 강화하고 교육니즈가 높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열처리 등) 분야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한 기술에듀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기술과정을 확대하여 인력부족으로 연수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교육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단위 : 명, %)

2015년 연수실적

과정	2014년 실적	2015년		
		계획(A)	실적(B)	달성률(B/A)
직무역량향상연수	16,341	16,341	19,239	117.7
맞춤연수*	399개사 (14,953)	399개사	550개사 (11,236)	137.8
문제해결	168개사	166개사	208개사	125.3
현장맞춤형	152개사	147개사	230개사	156.5
조직활성화	79개사	86개사	112개사	130.2
정책연수	8,794	9,700	13,215	136.2
중기지원정책	1,753	1,930	2,180	113.0
수출교육	433	500	708	141.6
취업연계연수	4,162	4,695	4,907	104.5
기타(산학협력 등)	2,446	2,575	5,420	210.5
원격연수	23,093	13,500	24,285	179.9
계	399개사 48,228	399개사 39,541	550개사 56,739	137.8 1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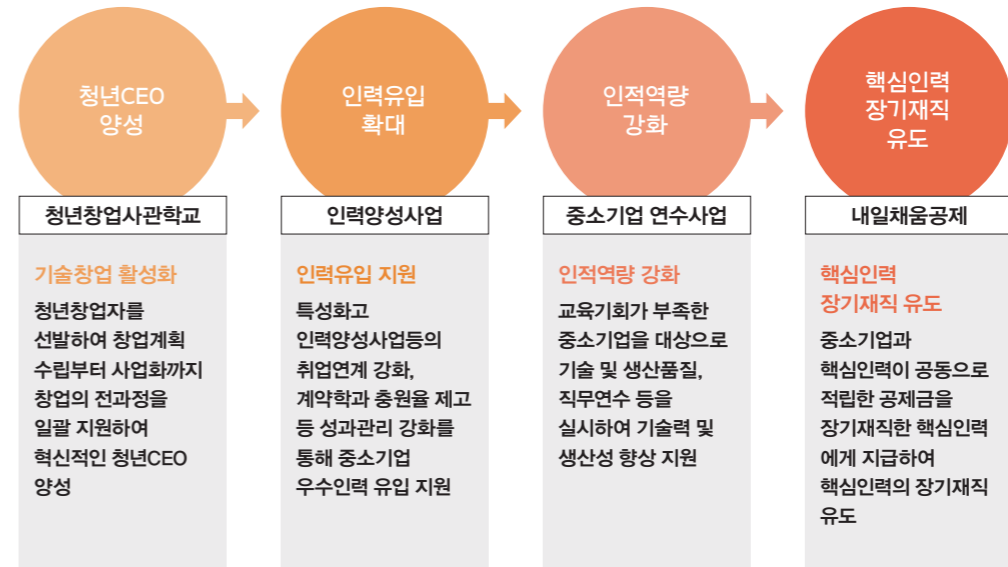
* 2015년 맞춤형연수 인원수 11,236명 합산 시 총 연수실적 67,975명

민간과 차별화된 공공연수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지역특화연수 등 공공연수를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내수 비중이 높은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마케팅사관학교 연수를 새롭게 추진하였다.

우수 연수고객 방문마케팅 및 연수과정 미스터리 쇼핑 실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과정보다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과정 운영에 반영하였고, 연수종료 후에는 고객의 목소리(VOC)를 상시 수집하여 연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안산(본원) 및 지방연수원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HRD지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공유하고, 연수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역량향상연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학습자의 지식획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학습성취도 조사"와 실무교육 대상으로 교육내용의 현장실무 적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업적용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성과 측정을 위해 "투자회수율(ROI)" 조사를 신규 도입하는 등 교육실효성 및 성과 측정을 통한 사업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다방면의 다양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양성 플랫폼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만39세 이하)를 선발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청년CEO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창업교육과 코칭, 창업공간 및 1억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 등이 패키지로 지원되고(One-Stop지원), 중간평가를 통해 불성실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입교생을 중간 퇴교시키며(중간퇴교시스템), 마케팅 및 사업화 용자금 등의 후속 연계지원 등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청년층 기술창업의 사업화기간 단축과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2015년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혁신형 청년CEO 양성을 위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 선발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졸업자를 위한 추가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입교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1차 중간평가 우수등급자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제를 신규 도입하였다.

제도 개선	성과
우수 기술창업자 선발 확대 • 우수 기술창업자 선발 목표 : (2014년) 19% → (2015년) 30% •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선정평가 과정의 기술성 평가 비중 강화	• 2015년 우수 기술창업자 선발 비율 : 97명, 35% ※ 97명(안산 48, 천안 15, 광주 18, 경산 8, 창원 8)
우수 졸업자 대상 추가지원 신설 • 대상 :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수 졸업자 • 최종평가 우수등급자 중 별도 심사를 통해 차년도 사업 입교 자격 부여	• 추가 지원자 20명 선발 ※ 20명(안산 12, 천안 3, 광주 2, 경산 2, 창원 1)
사업비 인센티브제 신설 • 대상 : 1차 중간평가 우수등급자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추가 지급으로 선의의 경쟁 유도	• 77명 인센티브 지급 ※ 지원총액 : 16억원 (중단(퇴교) 조치에 따른 미집행액 활용)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 인식개선 및 도전정신 고취를 위한 기업가정신관 '챌린지 홀(Challenge Hall)'을 개관하고, 제품 트렌드 변화의 즉각적 대응 및 시장 주도력 확보 지원을 위한 3D프린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보강하였으며, 고객·시장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팀코칭 활성화, 특화코칭 내실화 등의 소통과 공유 기반 코칭을 강화하였다.

2015년에는 총 1,121명이 입교 신청하여 3단계 심사를 통해 이 중 278명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매월 창업활동 보고, 중간평가 2회 및 최종평가 1회 실시를 통해 불성실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미달되는 26명을 중간 퇴교시켜 최종 252명이 졸업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선발	퇴교	졸업	비고
2011년도 1기	241	△29	212	졸업(2012. 2월)
2012년도 2기	229	△16	213	졸업(2013. 2월)
2013년도 3기	301	△47	254	졸업(2014. 2월)
2014년도 4기	307	△23	284	졸업(2015. 3월)
2015년도 5기	278	△26	252	졸업(2016. 2월)

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청년CEO 양성 규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졸업 후 5년간 창업기업의 창업유지, 성과 실태파악 등 성장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후속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졸업기업의 생존을 제고 및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구분	지원 분야	연계지원 실적
후속 연계지원	발명전시회	금상18개, 장려금상3개, 은상9개, 특별상10개 등 수상
	단체전시회	11개 전시회, 207개사 참가
	시제품 업그레이드	117개사
	카탈로그 제작 등	83개사
	데모데이 및 IR	8회, 41개사 참가(투자유치 22.5억원)
	우수 기획기사	13회 16개사

청년창업사관학교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기준 : 2015년 말)

구분	창업자(A)	창업유지(B)	생존율*(C=B/A)
2기(3년차)	213팀	136팀	63.8%
3기(2년차)	254팀	181팀	71.3%
4기(1년차)	284팀	240팀	84.5%

* 생존율 : 국제청 홀덱스 기준 정상기업 중 매출액이 있거나 상시종업원 수가 있는 기업의 비율
 ** 제조업 창업기업 생존율(2013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 3년차 49.2%, 2년차 57.5%, 1년차 68.9%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창업생존율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개교 이후 5년간 1,2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매출액 1,144억원, 일자리창출 1,001명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준 : 2015년 말)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계
졸업생(명)	212	213	254	284	252	1,215
매출액(2015년 상반기, 억원)	227	378	197	288	54	1,144
일자리창출(2015년, 종업원/명)	99	142	144	292	324	1,001
지재권등록(누적, 건)	226	505	476	473	78	1,758

청년창업사관학교
주요 운영성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4년도 8월에 출범하였다.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과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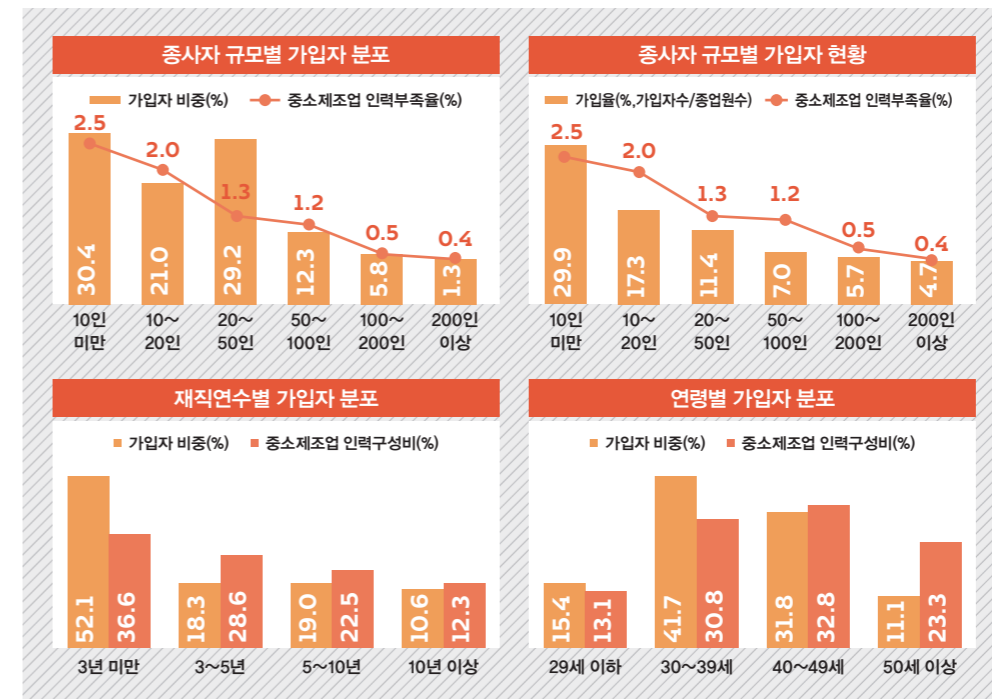
출범 후 2015년말까지 4,192개 기업에서 10,123명(누적기준)이 가입하여 당초 목표인 10,000명 대비 101.2% 달성하였고, 매월 평균 납입금액은 근로자가 119천원 사업주가 301천원씩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실적

누적 가입목표(A)	가입실적			달성률(B/A)
	기업수	인원수(B)	기금조성	
10,000명	4,192개	10,123명	296억원	101.2%

가입자의 80.6%가 인력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며, 장기재직이 필요한 재직연수 3년 미만(52.1%)과 39세 이하(20~39세) 청년층(57.1%)의 가입비중이 높아 인력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연령별/재직연수별 인력구성비 : 중소기업실태조사(2014, 중앙회) 재편·가공

공제가입자의 취약부분 개선 및 수요자 확대를 위하여 세제지원 및 연계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발굴 및 홍보노력으로 디지털을 조선일보 주최 「2015년 히트상품」에 선정되었다.

구분	주요내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업납부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
핵심인력 세제지원	핵심인력이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 납부금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50% 상당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개정
지자체 연계사업 기반 마련	성과보상기금에 정부·지자체의 출연 근거 조항 신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35조의3 개정

중소기업 세제지원 및 연계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또한,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과 MOU를 통해 협력사 핵심인력 장기재직(공제가입) 83명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을 실현하였고,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1점)을 반영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진공-한국남동발전 업무협약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 구현 : 협력사 내일채움 공제 가입지원(2015년)

구분	협력사 업체수	지원 인원수	지원액(백만원)	비고
한국남동발전	28	83	498	5년간 1인당 600만원 지원 (月10만원×6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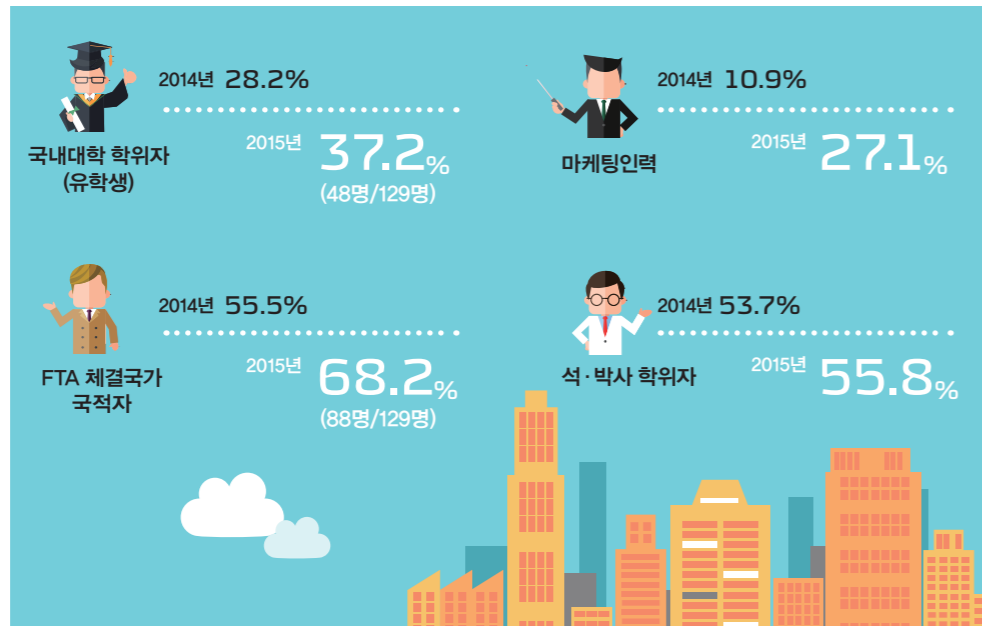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성과보상기금 가입자 10,000명 달성의 성공적 사업정착을 기반으로 향후 청년취업 연계 상품 등 상품다양화 추진 및 동반성장 모델을 민간 대기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에서 해당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이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원천기술·IT·마케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129명(수도권 72명(55.8%), 비수도권 57명(44.2%))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또한,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 및 재외동포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지원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선진국 인력 및 FTA 체결국가 국적자, 마케팅인력, 석·박사 학위자의 채용비율이 증가하였다.

외국전문인력 채용비율 추이



국가별로는 기초소재 부품 분야 기술력이 우수한 일본, IT분야 우수 기술인력을 다수 보유한 인도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능력을 가진 중국 출신 인력이 다수(45.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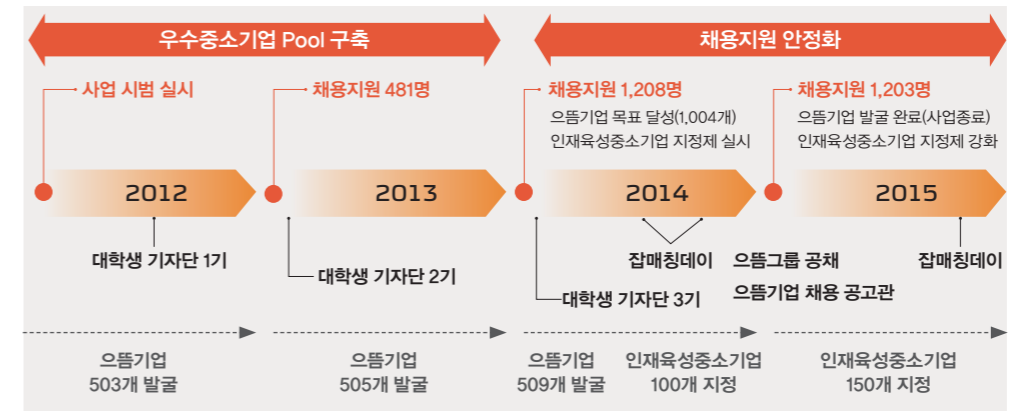
2015년도 사업 성과분석 결과, 외국전문인력 도입으로 기존 제품·기술의 업그레이드(53개 업체, 58.9%)가 가장 많았으며, 신제품·신기술개발에 도움(43개 업체, 47.8%), 기술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41개 업체, 45.6%) 순으로 성과를 보였다. 또한, “외국전문인력 국내적응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근무환경 및 문화적 차이로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전문인력의 국내 조기적응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하였다.

* 주요 프로그램 : 기초 어학교육,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경제현황 교육, 한국 중소기업 문화안내, 국내 적응 성공사례 전파,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으뜸기업, 스마일스토리)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 사업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뜸기업)을 발굴·선정하여, DB구축(으뜸 e 대학생 기자단의 콘텐츠 제작) 및 정보제공(스마일스토리지 홈페이지)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력미스매칭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012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중진공 지원 우수 중소기업 중 505개사를 발굴·선정하여 으뜸기업 1,004개사를 확정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신규로 500개사를 선정하여 유효기간(2년)이 경과한 기업을 대체하였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사업 수행 과정

으뜸기업 전용 홈페이지인 스마일스토리(www.smilestory.or.kr)는 으뜸 e대학생기자단이 취재·작성한 스토리텔링, 취재담화, 갤러리 사진 등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해왔다.

전국 대학의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으뜸그룹 공채’, 스마일스토리 사이트를 통한 으뜸기업의 상시 채용 프로그램, 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잡매칭데이 행사 등을 통해 으뜸기업-대학생간의 인력매칭 사업도 추진해왔다. 또한 취업포털 사이트인 ‘사람인’, ‘인크루트’ 및 ‘워크넷’ 등에 으뜸기업 채용전문관을 구축하고 스마일스토리지와 연계(배너링크)하여 구직자들에게 으뜸기업 정보를 널리 확산해 왔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사업 추진실적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 사업은 2012년도부터 4년간 추진되어왔으며 총 4,262명의 구직자들에게 취업연계를 지원하였고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추진 종료되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오픈기업 선정(개사)	499	505	509	0
취업연계(명)	481	1,208	1,203	1,370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채용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은 대국민 대상 미디어 홍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을 바로 알리고,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총 28회)하여 28개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소개하고, 47명을 취업 연계하는 등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및 고졸 채용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체험캠프를 개최(8회 487명)하고,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연극 특강(25개교, 1,508명), 토크콘서트(14개교, 2,691명), 중학생의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현장탐방 특강(75개교, 4,144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 실시하였다. 또한,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보급, 온·오프라인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간담회 개최,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 추진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중소기업 바로알기 연극특강



중소기업 체험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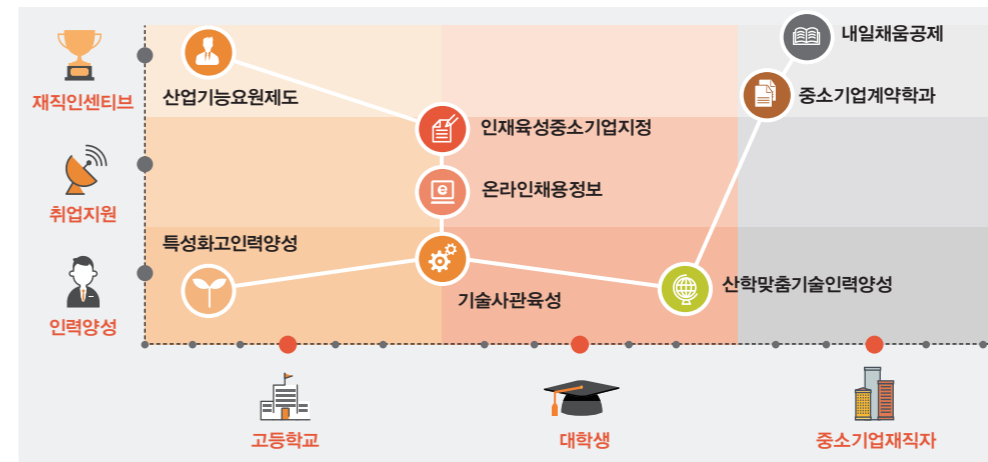
중소기업 바로알기 토크콘서트



중소기업 현장탐방 특강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은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중심 직업교육 자원과 특성화고·대학의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일학습 병행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 유입·양성·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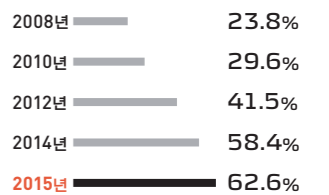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015년 4월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된 사업이다.

사업이관을 통해서 중진공 인력지원사업 목표인 「중소기업 인력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진공 사업간 유기적 연계로 채용부터 장기재직 유도, 기업의 역량강화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구분	이관 전	이관 후
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부서중심의 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진공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능동적 사업 추진 지역거점 활용한 사업 연계 및 확대
사업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인력양성사업 개별수행 사업별 방식, 매뉴얼 등 제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효율성을 위한 통합 관리 인력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추진 체계적인 사업 DB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양성사업 이관 전·후 주요 개선실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추이



** 비지원학교 취업률
2014년 45.8%
2015년 45.0%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44,571백만원을 투입해서 총 48,72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162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대상자중 27,327명이 취업하여 62.6%의 역대 최고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2015년도 인력양성사업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전국 162개 특성화고(43,519명)에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로지도 및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28,321백만원 지원 (평균 1.8억 내외 지원)
기술사관 육성사업	• 17개 사업단(2,613명)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5,236백만원 지원 및 관리 • 산업기사 취득 프로그램 편성 등 핵심성과 우수 교육과정 개편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 15개 대학(859명)에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을 위해 2,850백만원 지원 •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일반대(한국산기대, 경일대) 신규선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 41개 대학, 48개 계약학과 및 재학생에게 학과 운영비 및 등록금 지원 (1,630명, 7,260백만원 지원) 및 관리 • 박사과정 3개학과 신설 및 보증보험제도 도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완화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기업에 대해 ①서면평가(정량평가), ②현장평가(정성평가), ③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 1차년도인 2014년도에는 100개사, 2차년도인 2015년도에는 150개사가 지정되었다. 지정기업에 대한 기획보도와 광고 등을 통한 홍보, 취업포털을 통한 구인자원을 통해 지정기업의 인재육성 분위기를 전파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사)

기계	금속	화학	전기전자	S/W	정보통신	서비스	기타	계
30	22	21	20	13	12	10	22	150

* 기타 : 식품5, 생명2, 환경2, 섬유2 등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계
27	30	3	6	8	6	8	7	1	4	11	8	11	20	150

종업원 수 현황

(단위 : 개사)

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3	26	32	47	38	4	150

* 최소 1인, 최대 469인, 평균 87인

매출액 현황

(단위 : 개사)

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300억 미만	300~500억 미만	500억 이상	계
1	24	27	68	11	19	150

* 최소 3.3억원, 최대 901억원, 평균 211억원

2015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 현황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홍보 및 구인지원

주간지·일간지 광고

홈페이지 현장탐방기

취업포털 구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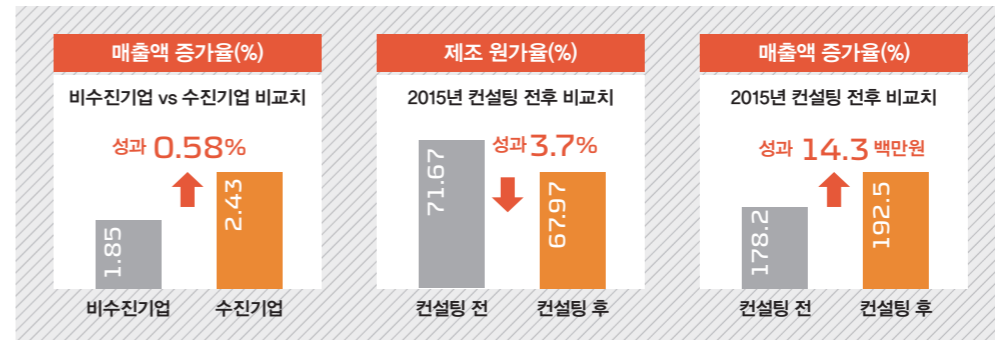
기술컨설팅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주관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 기존 기정원에서 운영하던 컨설팅 지원사업(수요자선택형 컨설팅, 컨설팅 대학원)을 일원화(컨설팅 업무, 인력, 예산 통합)하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다.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2015년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구축, 컨설턴트 관리 강화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컨설팅 대학원을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방법론 개발을 실시하여 컨설팅 기반강화에 의한 컨설팅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2015년 사업추진을 통해 총 1,092개 기업을 선정하여 1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경영지표 개선 등 높은 컨설팅 지원성과를 창출하였다.



2015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성과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며 과제는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방식으로 동 산업 전문가의 기술사업성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기술개발 및 BM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보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과제 성공 시 기술료를 정부보조금의 10% 이내에서 납부한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개발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예산	3,500백만원
지원기간	• 자전거산업 분야 : 2년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3년 이내
지원한도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8억원 이내)
지원비율	총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BM(Business Model)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2015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 사업 정부보조금 규모 및 지원 내용

2015년 신규과제 접수 결과 총 34개 과제(자전거 분야 9개 과제, 해양레저장비 분야에 25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7개 과제(자전거 3개, 해양레저장비 4개)를 최종 선정하여 신규 지원하였다. 또한 2014년 선정된 과제 중 연차평가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10개 과제(자전거 3개, 해양 7개)를 계속과제로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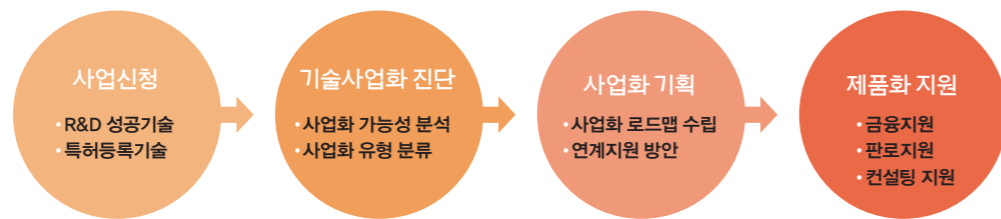
지원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및 '시제품출시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 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및 출원 6.5건, 시제품 출시 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통합 방침에 따라 한국산업 기술평가위원회의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해양레저)을 인수·통합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유일의 레저장비산업 육성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및 제품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정부 R&D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2015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이며, 선정 시 정부보조금 및 기업 부담금으로 사업비를 조성하여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5년에는 진단 및 사업화 기획 모듈 개발을 통해 R&D 성공기술 중 사업화 미 추진 기술에 대하여 One-Stop 지원할 수 있는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체계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사업화 기획 32개사, 제품화 지원 20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정량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목표대비 125% 초과달성하였다. 또한 협약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사업화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303백만원의 신규 매출실적을 달성하였다.

기술사업화 지원기업 신규매출실적

업체명	매출품목	매출발생일	매출액(원)
(주)○○테크	자동전압설정방식 SMPS	2015.10.29	3,978,000
(주)○○○○	디지털 마이크론용 SoC용 Wafer	2015.08.31	29,100,000
○○○○○○(주)	축내장형 과적단속용 트럭스케일 시스템 설치	2015.09.07	89,728,182
(주)○○○○○○	TV용 Back Light Unit	2015.09.16	20,000,000
○○테크(주)	반도체 Package용 프레스 장비	2015.10.08	160,636,363
계			303,442,545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은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진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리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회출을 유도하여 시장 내 명맥만 유지하는 '좀비기업'의 양산을 막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 6억원 예산으로 총 231개 기업에 대해 진로제시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31개 지원기업 중 19개사에 "회생컨설팅 지원" 처방을 하여 그 중 11개 기업이 회생컨설팅을 신청했으며, 24개사에는 사업정리 안내, 나머지 188개사에는 "구조개선" 판정으로 수출마케팅, 워크아웃, 자금 등 지원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단위 : 개사)

구분	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정리	구조개선 등	계
지원기업	19	24	188	231

2015년 진로제시컨설팅 처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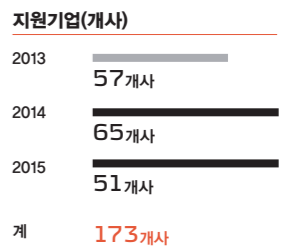
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은 법원 회생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나 회생절차 비용조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회생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원 조사위원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법원 회생개시신청서 작성, 조사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등 회생절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 57개사, 2014년 65개사, 2015년 51개사 등 총 173개 기업을 지원결정 했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회생인가율을 제고하고 있다.

2015년 중 회생컨설팅 완료기업 61개사 중 40개사의 경우 회생인가결정이 완료되어, 65.6%의 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가능한 지표인 최근 5년간 법원의 회생인가율 통계수치(34%)를 31.5%p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신청부터 인가 시까지 컨설팅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013년~2015년 회생컨설팅 지원실적



02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

ANNUAL REPORT
2015

88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93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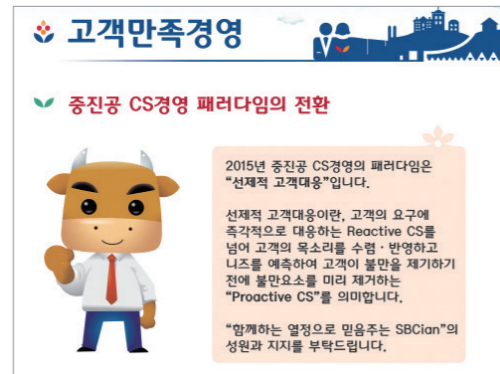
고객중심의 CS경영 추진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2015년에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를 향상시키기 위해 'CS실천문화 정착', '선제적 고객대응체계구축', '고객 충성도 제고'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략 추진을 위한 9개 실천 과제를 통해 전사적인 CS활동을 펼치 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도 CS경영 추진 체계도

CS 목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향상		
추진전략 · 과제	CS 실천문화 정착	선제적 고객 대응체계 구축	고객 충성도 제고
	· CS 동기부여 인프라 확보 · 맞춤형 CS 교육 강화 · 내·외부 고객 소통 강화	· VOC 시스템 고도화 · CS 모니터링 체계화 · 신규제도 CS 진단	· 지속경영 확산운동 내실화 · 점점 서비스 품질 표준화 · 고객충성도 관리
CS 핵심가치	함께하는	열정으로	믿음주는
	전 직원들의 고객지향적 서비스 마인드 무장	신속하고 열정적인 고객대응	공정·투명·전문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존경받기

우선 'CS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CS경영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보상을 강화하였다. 중진공 SNS, 지속경영소식지 등을 통해 CS활동 우수 스토리를 대·내외에 확산하고, 지속경영 마일리지 제도 및 고객의 칭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교육 대상별 맞춤형 CS 교육(집합교육 10회)을 실시하여 고객 소통능력을 강화하였고, 중진공 업무를 보조하고 사업수행을 돕는 협력고객들(전문위원, 컨설턴트 등 147명)에 대해서도 맞춤형 CS교육을 실시, 전사 서비스 품질의 균질화를 이루어냈다.



지속경영소식지

맞춤형 CS 교육

CS경영 추진 성과

구분	2015년
순추천고객지수 (NPS)	90.5
전화친절도	93.5
해피콜 만족도	86.8
VOC 적기응답(%)	82.8

또한, '선제적 고객대응 체계구축'을 위해 VOC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VOC유형 분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통계분석 tool을 강화하여 고객 문의 및 불만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였다. 시스템 개선과 함께 분기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니터링(NPS:순추천고객지수)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 평가·관리의 공급자 중심의 CS 모니터링에서 사전적·고객불만 예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CS모니터링으로 개편한 것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고객충성도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 실천과제를 부여하였고, 총 104개의 과제를 100%수행함으로써 고객체감도 및 충성도 제고를 위한 지속경영확산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윤리경영 추진전략 재수립 및 시행을 통한 반부패 청렴 실현

'윤리경영 실천력 강화를 통한 부패·비리 사고 원천차단'을 2015년 중진공 윤리경영 목표로 정하고, 부패 비리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윤리경영 인프라 정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고객신뢰도 제고' 등 3대 추진 전략과 6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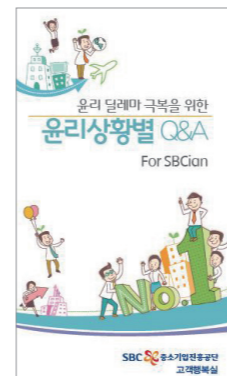
2015년도 윤리경영 추진 체계도

윤리목표	윤리경영 실천력 강화를 통한 부패·비리 사고 원천차단		
추진전략	윤리경영 인프라 정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고객중심 활동 강화
	제도 및 규정 정비	학습 및 내재화	고객신뢰도 제고
실행과제	① 부패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조직정비 ② 부패비리 차단을 위한 규정 개정	③ 청렴도 개선을 위한 확산운동 확대 ④ 직무·직급별 맞춤형 교육 추진	⑤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및 홍보 ⑥ 윤리의식 진단 및 모니터링 강화

우선, '윤리경영 인프라 정비'를 위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Clean SBC 추진단(감사, 인사, 규정, 전략, 윤리 등 부서장 7명)'을 구성하였고 실무수행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대책수립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격한 처벌을 하기 위한 비위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질적 보상을 위해 반부패·청렴 우수활동 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신규 제도 도입 등 내부규정을 제·개정 하였다. 또한, 윤리 취약요소 개선 및 실천 활동의 고객체감 효과가 높은 테마를 직군별로 분류하여 부서별 Top-down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작년대비 참여부서를 확대하여 총 57개 부서가 8개 테마의 주제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가 연상되는 6월 2일을 중진공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여 임직원 청렴결의, 기관장 윤리메시지 전달, 전문가 초청 특강, 청렴리본 패용, 윤리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임직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임직원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윤리경영 소식지 및 윤리레터마 극복을 위한 윤리상황별 Q&A 소책자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임직원 윤리의식 진단 및 기관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에 대한 고객 체감도를 조사하여 현장부서에 전달·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윤리경영 추진 성과

구분	2015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8.34
윤리경영실천지수	93.5
조직윤리지수	86.6



윤리상황별 Q&A소책자



청렴 결의

기관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수행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중진공은 2015년 사회공헌 추진 목표를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경영 완수'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도 사회공헌 추진 체계도

추진목표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경영 완수		
추진방향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3대 영역 6대 테마	행복공감	희망공감	사랑공감
	· 중소기업 역량강화 · 중소기업 협력봉사	·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소기업 인식개선	· 지역친화 프로그램 · 소외계층 나눔활동

먼저, 사회공헌의 영역을 행복공감, 희망공감, 사랑공감으로 3대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 행복공감은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협력봉사로 중진공이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사회공헌에 접목시킨 것이다.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와 함께 수행한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은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한 활동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진공이 보유한 기업진단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멘토링 활동으로 지원하며 행복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두 번째 희망공감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다. 중진공 여러 부서에서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강의 및 진로·취업의 코칭을 지원하여, 불안정한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사랑공감은 이전 지역 친화 프로그램 실시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신입사원도 진주 혁신도시 내 소재의 갈전초등학교에 멘토링을 추진하였다. 또한, 진주 소재의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공헌기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신입사원과 장학생을 멘토-멘티로 지속적인 멘토링을 진행하여 사랑공감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진주에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진주중앙유동시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과 친밀한 공공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복공감 24건, 희망공감 25건, 사랑공감 8건 등 총 57건을 수행하며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재능기부 활동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다.

사회공헌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통해 1인당 평균봉사시간은 작년 대비 2.3시간 증가한 13.4시간을 기록했고, 재능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져 재능기부 실적 또한 작년 대비 11.7%p 증가한 총 봉사시간의 65.2%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공헌 추진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1인당 평균봉사시간	11.1시간	13.4시간
재능기부 실적	53.5%	65.2%



초등 멘토링 '생생교실'



중진공 장학금 수여식

정책중개

2011년부터 중진공은 기관의 강점인 현장성을 살려, 지역본부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중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발굴된 애로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매월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중진공은 "정부정책과 중소기업 현장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역본부에서 수집한 애로사항 228건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 51건의 규제를 정부 시책에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했다.



정책중개 업무절차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중소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 39건을 상담·해소하였다.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금감원 등 정책중개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중소기업 애로발굴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총 26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현장 상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번호	건의명	건의내용
1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현황)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대상중 보증채무의 범위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은 제외되어 해당 중소기업인은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개선)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채무대상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
2	벤처기업 요건완화 (특허담보대출)	(현황) 기술가치평가 통해 해당기술의 우수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지원하고 있는 특허 담보대출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 대상자금에서 제외 (개선) 관련요령 개정을 통해 특허담보대출이 벤처기업 확인 대상 자금으로 조속히 포함
3	식품업체 식품레시피 변경 간소화	(현황) 식품업체들은 식품제조품에 레시피 및 제조공정 변경이 있으면 소속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하도록 되어있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발생 (개선)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통합식품안전정보 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변경 가능하게 개선
4	외국인 취업개시·근로개시 신고 절차 개선 요청	(현황) 현행 법규상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여 근로를 시작한 경우, 신고사항에 따라 신고처가 각각 상이하여 해당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시간 및 비용 등 애로가 발생 (개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둘 중 편리한 곳에 신고하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5	교면포장 배수구 설치 세부 규정 개정	(현황) 교면포장 배수구 설치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실제 시공시 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개선) 시행기준인 "교면포장품질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상기 시방서에 맞추어 일부 수정

2015년도 주요 정책개선 사례

정보제공(간행물발간)

중진공은 설립 첫 해인 1979년부터 지금까지 36년간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최신 고급정보를 담은 중소기업 경영·기술 전문지 월간 『기업나라』를 발간하고 있다. 매월 1일에 발간되는 『기업나라』에서 중소기업 CEO의 경영철학과 우수제품을 현장취재를 통해 소개하고,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경영·기술 트렌드에 대한 심층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CEO 경영을 말한다」, 「세상을 향해 하이킥」, 「명작」 등 성공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CEO의 인터뷰 기사와 우수 중소기업제품 등 성공사례 콘텐츠에 대한 독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매월 금융, 기술, 마케팅, 인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요약한 「사장님, 보고드립니다」 등의 시책정보도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구독 회원 150개사를 '독자 모니터링단'으로 선정해 상·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콘텐츠 만족도 분석을 통해 코너 개편과 특집 기사 기획 등에 반영하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및 재도전지원센터 지원기업 등 정보획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정책과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기업나라』를 무상 배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접점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30개 지점과 18개 지역 테크노파크에 비치하여 중소기업 관련 정보제공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기구독 회원들에게는 월간지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상식과 인사실무 사례를 모아 소개하는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과 '현명한 CEO의 원원 노무관리'를 단행본 부록으로 제공하였다.

2015년 발간자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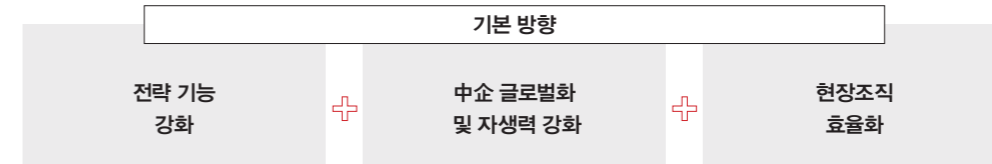
구분	자료명	발행시기	발행부수
정기간행물	월간 「기업나라」	매월 1일	10,000부
단행본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2015. 8월	13,000부
단행본	「현명한 CEO의 원원 노무관리」	2015. 12월	10,000부

조직 경영효율성 강화

중소기업 글로벌화·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및 조직체계 개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의 출범, 고성장 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등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총 32명의 인력을 증원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예산443억원)과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예산91억원)을 이관받고 사업 추진을 위한 10명의 정원을 함께 인수하였다.

증원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인사업의 인력배치와 함께, ①전략기능 강화, ②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자생력 강화, ③현장조직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추진방향	조직개편 내용
전략 기능 강화	· 정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략수립 및 이에 따른 이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실* 신설 * 중장기 전략수립, 신규사업 개발, 업무혁신 등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자생력 강화	·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순현장조직*에서 해외마케팅 업무 수행 * 16개 지역본부 해외마케팅 수행 → 31개 지역본·지부 확대 · 재창업, 사업전환 등 재기지원 사업의 총괄 수행기반 구축을 위해 무역조정·사업전환센터를 재도약성장처로 확대·개편 - 실패기업의 재도약에 필요한 종합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서울, 대전, 부산) · 출범초기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성과보상사업처 신설
현장조직 효율화	· 지역본·지부 집행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남부권경영관리실을 2개*로 분할 * 중남부권경영관리실 → 서부권경영관리실, 동부권경영관리실 · 경영관리실에 「기술·경영전문센터」를 신설하여, 전문분야* 지원 강화를 통한 현장조직 전문성 보완 * 지역본·지부 업무 중 발생빈도가 낮고, 전문성이 높은 업무 · 업무 효율성·전문성 및 One-Stop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팀(사업추진, 연계지원) 및 사업운영팀(후선업무)으로 현장조직 팀 편제 개편

2015년 조직개편 추진 방향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 홍보

정부3.0 효과적 추진기반 마련

박근혜 정부 국정 2기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 정부는 정부3.0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제별 선택과 집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중진공은 정부3.0 중장기(2015년~2017년) 실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총 4개 분야(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변화관리) 21개 과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행사항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등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중진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 정부3.0 추진체계를 진단하고 점검하였다.

2016년도에는 지속적인 과제 점검을 통한 성과 가시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창업 분위기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신규과제 발굴과 정부3.0 홍보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실업 증가 등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재수립하였다. 전략목표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42명을 증원하였으며, 직무 및 업무량 분석을 바탕으로 NCS 기반 채용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12개 직무에 60명을 채용하였다.

회계사, 기술사,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략실행력을 강화하였으며, 정책용자 신청체계 개선 전담반 등 임시조직을 적절히 활용하여 조직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기관의 인력현황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인력의 지속적인 유입(20대 86.7%, 30대 13.3% 채용)과 여성(33.8%) 및 비수도권 인재(38.9%) 영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고졸 입사자의 역량제고를 통한 처우향상을 위해 후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최초 도입하였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실행을 분석하여 근무시간선택형 탄력근무제를 추가 도입하였으며, PC-OFF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집중근무제 등을 신규 도입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과 업무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여성인재의 지속근무와 우수역량 발휘를 위해 장기 파견교육 기회 부여, 주요보직 배치, 육아휴직 및 단시간근로 장려 등의 정책을 펼쳤다.

한편 인사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승진 및 전보원칙을 재정립하여 사전 공지하였고, 채용 외주화와 외부위원 참여, 다면평가 도입, 권역별 전보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부서장·팀장 보직 후보군(Pool)제도와 보직 공모제, 저성과자 보직 제외(7명) 등을 통해 간부직원의 동기유발과 성과향상에도 노력하였다.



전문인재 중점 육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겸비한 중소기업의 Best Partner를 육성하는 것을 HRD 목표로 설정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이 현장에서 성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원 및 조직의 니즈를 분석하여 연간 HRD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운영하였으며, 역량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가진단 및 상사진단을 통하여 개인별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 기반의 자기주도형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1인당 교육시간은 121시간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1인당 교육비도 123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15년은 NCS 채용을 도입하면서 신입직원 입문교육도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중심으로 강화하였다. 신입직원이 필요한 기초능력 함양과 조직에 부합하는 핵심가치와 인재상을 바탕으로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교육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하여 신입직원 교육 평가결과 전년보다 3%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과지향 리더십 함양을 위해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전 부서장 대상 필수과정으로 2회 운영하여 부서장 역량을 강화하였다. 여성 리더십 교육은 외부 전문 프로그램 참여 위주로 구성하여 성과향상을 위한 리더 역할 함양 및 타기관 여성 관리자와 교류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전직원 리더십 역량진단 결과 4.04점으로 전년 대비 6.3% 향상되었다.



신입직원 입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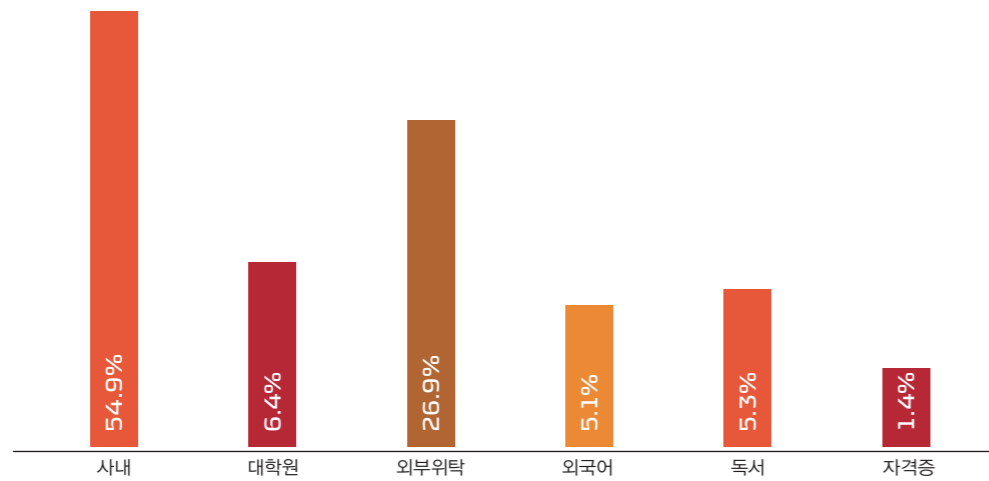
2015 분야별 교육실적

2015년 연간 교육실적

총 교육시간 (단위: 시간)	
2014년(a)	99,397
2015년(b)	106,117
증감(b-a)	6,720

1인당 교육시간 (단위: 시간)	
2014년(a)	118
2015년(b)	121
증감(b-a)	3

1인당 교육비 (단위: 만원)	
2014년(a)	121
2015년(b)	123
증감(b-a)	2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업사 및 사후관리 분야의 신용분석 및 여신 관련 전문기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사내전문가를 활용하여 매뉴얼강독 및 업무처리 절차 등 현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부서별 자율적으로 혁신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외부 교육을 연계지원하여 교육효과가 현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육성과지표인 교육만족도, 학습성취도 및 현업적용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분	교육만족도	학습성취도	현업적용도
2014년	3.95	(학습 전) 2.57 → (학습 후) 4.02 (1.45↑)	4.21
2015년	3.98(0.03↑)	(학습 전) 2.53 → (학습 후) 4.54 (2.01↑)	4.23(0.02↑)

2014년 도입한 모바일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외부 모바일콘텐츠를 도입하여 인문학·창의성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확충하였으며, 기존 현장기술동영상 모바일 콘텐츠도 기술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5개 분야 62개 동영상 → 7개 분야 112개 동영상)하는 등 교육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상 강화

정부정책을 구현하고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와 전략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략지표와 기관(장)지표 중에서 12개의 조기경보지표(KRI)를 설정하여 기간별 경영목표 달성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성과지표 개선작업 통해, 전략과 연계한 핵심업무와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중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자 중간평가 대상 직군을 현장직군에서 전 직군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평가 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대상 지표수 및 평가비중 확대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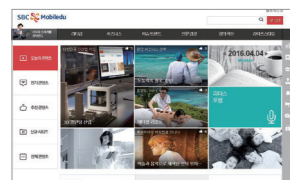
구분	전략연계지표(%)	결과지표(%)	외부위원 평가비중
2014년	66개 (66%)	47개 (47%)	52.1%
2015년	69개 (69%)	52개 (52%)	75.4%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전년대비실적

이와 더불어, BSC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 상시적 이의신청 제도를 실시한 결과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 결과 수용도가 상승하는 등 성과평가 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졌다.

구분	이의신청 만족도	평가 수용도	평가지표 적정성
2014년	4.02점	3.94점	3.94점
2015년	4.10점	4.06점	3.99점

성과평가 이의신청 만족도,
평가수용도 등



모바일레듀
<http://mobiledu.sbc.or.kr/main/main.do?deviceType=P>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과중심 보상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을 지속하였다.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조직평가에 따른 연봉제 직원의 성과급 차등폭을 2.43배, 개인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차등폭을 2.21배로 설정하는 등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합리적인 차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3년 이내 2회 이상 D 등급을 받은 저성과 부서장(1인)을 보직 미부여하고, 고성과 직원에게는 승진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 와 인사 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저성과부서 및 저성과자의 성과향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과향상을 견인하였다.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중 가장 화두가 된 것은 지역사회, 임직원 및 가족 모두가 어울리는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의 'SBC 문화주간'을 신설하여 운영한 것이다. 직원과 가족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지역주민을 초대한 작은 음악회, 전 직원이 영화 보는 날 무비데이, 신입직원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힐링 카테일 나눔 등 성공적인 진주 본사 이 전을 기념하고 임직원의 일체감을 제고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도에도 GWP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대내외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은 음악회 초대장



힐링 카테일

성과중심의 차등보상 강화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총연봉 차등폭	26.1%	28.1%	2%p 증가
성과연봉 차등폭	2.18배	2.21배	0.03배 증가
직무급 비중	3.3%	3.5%	0.2%p 증가

본격적인 성과연봉제의 확대 도입에 대비하여, 개인평가와 조직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과관리점검, 지표개선 워크샵, 성과관리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슴 뛰는 직장을 위한 신(新) 조직문화 구축

2015년 중진공은 가슴 뛰는 직장을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자부심 있는 직원, 일·가정 양립,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일터를 3가지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먼저, 전 직원이 자부심 있는 직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치체계 내재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새롭게 구축한 중진공 인 상(象), 핵심가치 행동강령, 리더십·팔로워십 모델 등 중진공 고유의 가치체계를 확산하고 내재화하기 위해 직급 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만족도 5점 만점의 4.65점으로 나타나 가치 체계 내재화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신규로 PC-OFF시스템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을 수립·추진하여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직원의 수험생 자녀에게 합격기원 선물을 보내고, 진주시와 연계하여 가족농장을 분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 기반을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진공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직급간, 부서간의 소통을 키워드로 'CEO병개' 및 '런치타임'과 같이 기관장과 직원 간 격 없는 소통모임을 연 27회 실시하였고, CEO와 3급 이하 직원 간 의사소통의 장인 공감보드는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평적 토론문화 정착이후 연 6회에 걸쳐 논의된 사안을 통해 32건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동기회 워크숍인 '동치미'를 지원하여 일체감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문화주간 포스터



가족작품전 전경

03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방향

ANNUAL REPOR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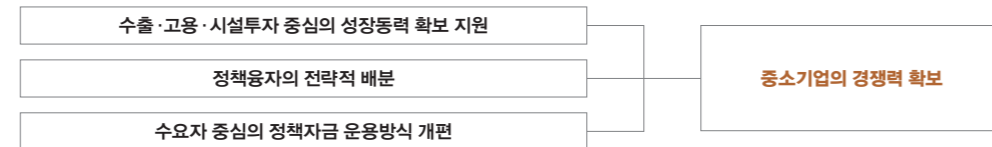
102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방향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추진방향

2016년 중진공은 ①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융자 지원, ②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강화, ③수요자 상황별 인력양성 맞춤형연계지원체계 강화, ④융합과 협업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을 주요사업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정부정책을 최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현장접점 기관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수출 증대를 선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01. 정책융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융자 지원 체계 강화



① '수출·고용·시설투자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수출증대·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한·중 FTA에 대응하여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자금)과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의 금리를 우대(△0.7%p 이내)하고, 지원비율을 상향(신성장기반자금, 80%이내 → 100% 이내)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② '정책융자의 전략적 배분'

기술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정에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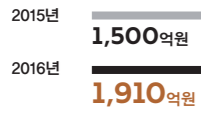
R&D 사업화 성공률과 정책융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유망기업에 대한 R&D 연계 지원의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 지원을 위한 투융자복합금융도 확대한다.

또한,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기술력 우수 기반의 성장·정체기 중소기업에 대한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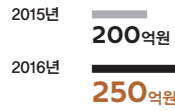
③ '수요자 중심의 정책융자 운용방식 개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대출기간 확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고, 건강진단 신청서와 용자 활용계획서를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융자 용자신청서」로 통합하는 서류간소화도 시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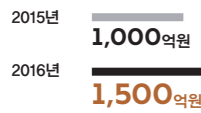
R&D 연계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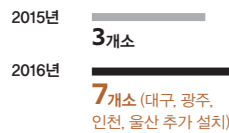
특허담보대출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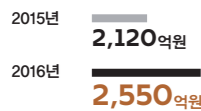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규모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재도약지원규모



02. 글로벌화 및 판로확대



* 국내·외 정책매장, 민간 대형유통망을 활용한 테스트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① '대내·외 협업을 통한 수출유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현장접점부서(31개 지역본·지부)의 수출기업 발굴과 글로벌뷰처스클럽의 확대운영을 통해 수출유망 내수기업을 연간 3,000개사 발굴하고 1,200개사(40%)를 수출성공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마케팅-융자-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내수기업의 수출성공률 제고를 추진한다.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중 FTA 종합대전, CBT(Cross-Border Trade) 로드쇼 및 글로벌유통소싱페어(8월)를 공동개최하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대외 협업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② '온·오프라인 통합 판매 채널을 활용한 수출 활성화'

온라인 판매 민간 전문기업을 통해 해외 오픈마켓에 수출 유망제품의 입점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진출 유통 대기업 및 현지 유통기업과 함께 정책매장을 확대하는 등 오프라인 판매 채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유망제품의 수출 순과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국내·외 판매 채널 다양화를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출BI 규모 확대
뉴욕, LA, 호치민,
하노이, 두바이 등
5개소

수출BI 규모 축소
시카고, 워싱턴,
베이징 등 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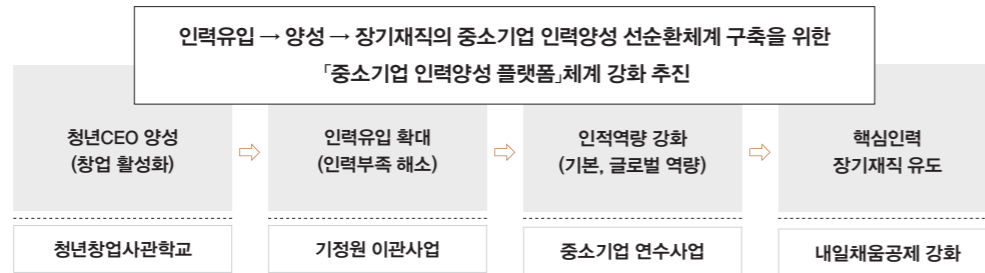
수출BI 신규 개소
충청(2016.上),
산티아고(2016.下) 등
2개소

③ 'FTA 등 환경변화에 따른 내수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 및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BI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FTA확대에 따라 FTA컨설팅과 중소기업 실무자에 대한 FTA대응교육을 강화하여 원산지증명, 원산지확인 등 수요자 측면의 FTA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중국, 미국 등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중동지역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03. 인력양성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문기술경력 보유자 선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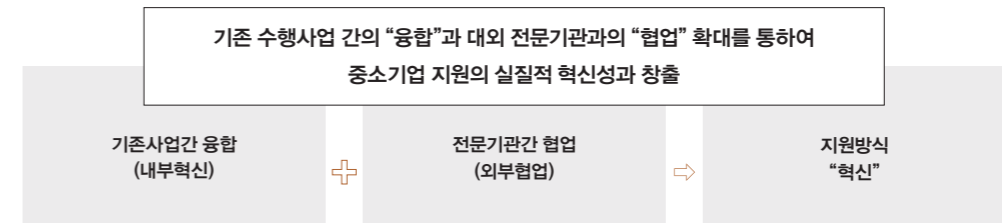


중진공으로 이관된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등 인력유입 지원사업의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및 기업과 밀착된 특화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창구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기업 및 신규고객 접점을 확충하고, 대·중소 동반성장 모델의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04. 융합과 협업



인재육성형 전용자금(내일채움공제+정책융자), 글로벌진출기업 전용자금(글로벌·판로지원+정책융자) 등 기존의 독립적인 사업들을 맞춤형 연계 및 패키지 지원이 가능토록 융합하여 신규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외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04

부록

ANNUAL REPORT
2015

- 10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 111 2015년 발간간행물
- 112 2015년 주요행사
- 113 조직도
- 114 운영위원 및 임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회사 현황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목동판매장(행복한세상백화점)을 개점하였다. 2012년 9월에 '행복한백화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4층에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인 'HIT500 PLAZA'으로 확장 오픈하여 창업벤처 제품, HIT500제품, 청년창업사관학교 제품 등의 초기 테스트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에는 창조혁신 제품의 '유통 마중물' 역할의 확대를 위해 4층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아임쇼핑」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우수 중소기업제품 사용을 더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확대 설치하여 인천공항 서편면세점과 여의도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및 워커히호텔 면세점을 2015년에 추가하는 등 총 16개소 외부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TV홈쇼핑사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 공급하고 2012년에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인 (주)홈쇼핑 설립시 주요주주(지분 15%)로도 참여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중소기업제품·농산물 판로확대, 창의·혁신상품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해소,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수협중앙회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공영홈쇼핑을 설립하고 최대주주(지분 50%)로서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판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 브랜드 지원, 구매상담회(판매전) 지원, 공동A/S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고 있다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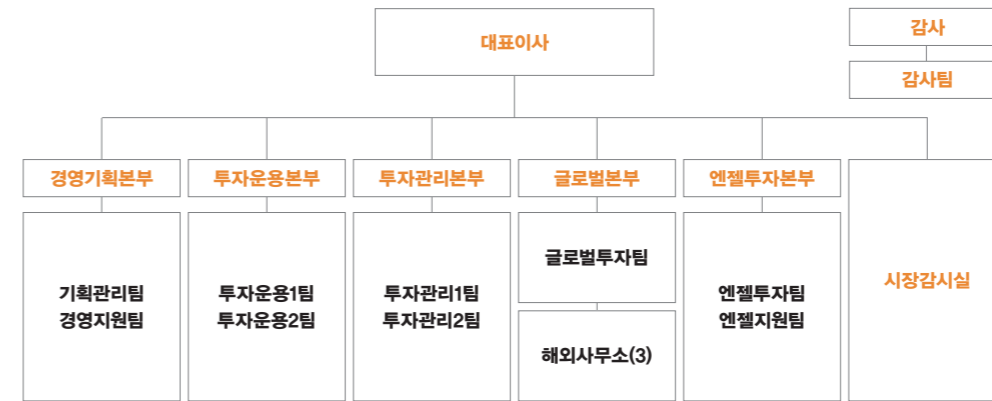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벤처투자(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촉진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영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舊 다산벤처)으로서 2005년 6월 29일 개소하였다.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15년 말 현재 2조 2,302억원이 조성되어, 3조 4,007억원(418개 조합)을 출자 약정하여, 12조 7,753억원의 자조합(한국벤처투자 조합 등)을 결성하였다.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주)는 해외 벤처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싱가포르에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를 신설(2015.9월)하였으며, 내외 벤처투자 정보 공유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국내외 LP(Limited Partner) 및 GP(General Partner)를 대상으로 International Value Workshop 및 'Start-up Korea 2015'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VC/PE Monthly(벤처캐피탈 전문 월간지)를 발간하여 관련 벤처캐피탈산업을 지원하였다.

한국벤처투자(주) 조직도



2015년 발간 간행물

SBC인증원

(주)SBC인증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와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 품질경영체제 인증관련 사업추진 위촉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 7월 28일 중진공 ISO9000인증기관으로 설립되어 1996년 1월 9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인증원은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TL-9000(정보통신분야품질경영시스템), K-OHSM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등의 인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인증원의 수익성 개선과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인력파견사업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인력파견을 수행하여 2013년 64명, 2014년 79명, 2015년 92명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였다.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인증건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3	790	4,739	130
2014	814	5,156	136
2015	860	5,622	138

SBC인증원 사업실적

SBC인증원 조직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안내서	2015.02
2014년 기업진단 우수사례집	2015.03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사례집	2015.03
2014년 연차보고서	2015.05
기업의 새로운 이름 도약	2015.06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2015.09
성공사례집-내일의 성공을 응원하라	2015.12
온라인 수출마케팅 고비즈코리아가 대이다	2015.12
성공사례집-세계의 인재들이 만드는 더 큰 생각	2015.12
인력양성 정부지원시책 가이드북	2015.12
2015년 중소기업 체험리포트 및 논문공모전 입상작 모음집	2015.12
현명한 CEO의 원원 노무관리	2015.12
내일의 성공을 응원하라	2015.12
중소기업 FTA활용 수출증대 성공스토리 똑똑!한 FTA	2015.12
중소기업 한·중 FTA활용 가이드북	2015.12
2015년 정책용자 성공사례-성장단계별 정책용자 활용하기	2015.12
으뜸기업-으뜸인재 Job매칭 좋은 일자리-좋은 인재의 만남 성공사례집	2015.12

2015년 주요행사

조직도

1월	2일	2015년 시무식
	16일	박철규 前이사장 퇴임식
	19일	임채운 이사장 취임식
	30일	창립36주년 기념식
2월	13일	성과보상기금 기금운용위원회 2015년 제1차 운영위원회
	26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MOU 체결 청년창업사관학교 제4기 졸업식
4월	7일	임원 및 부서장 핵심과제 협약식
	13일	기관경영평가 현장실사
5월	2일	제2회 윤리경영의 날 추진
	16일	중진공 진주시대 화합한마당 추진
	18일	한국남동발전(주) MOU 체결
6월	2일	제16차 한일정례회의 참석
	6일	ICSB World Conference 참석
	10일	제40차 APEC 중소기업 실무그룹회의 참석
	12일	2015년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의 장
	24일	청년창업사관학교 제5기 입교식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MOU 체결
	29일	제10차 동아시아 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
7월	16일	방위사업청 MOU체결
	6일	한국표준협회 MOU체결
8월	17일	2015년 올지연습
	4일	추석맞이 사회공헌 성금 전달
9월	23일	제2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제41차 실무그룹회의 참석
	1일	한국서부발전(주) MOU 체결
10월	5일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개소식(대전, 부산)
	6일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 MPTRIFAC MOU 체결
	8일	2014년 국정감사 수감
	25일	이스라엘 수출입공사(IEICE), 상공회의소(FICC) MOU 체결
11월	2~6일	SBC 문화주간
	23일	(사)한국메세나협회 MOU 체결
12월	1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MOU 체결
	15일	중국 중소기업발전추진중심 MOU 체결
	17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식 및 내일채움공제 1만명 돌파기념식
	24일	연말연시 중진공 사회공헌 성금 전달
	29일	2015년 하반기 정년퇴임식
	31일	송년 다과회

6본부 9실 14처, 31지역본·지부, 5연수원, 1학교, 1센터

(2016년 2월말 기준)



운영위원 및 임원

운영위원

(2016년 2월말 기준)

구분	성명	소속기관	직위
위원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연직	조규홍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백운만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위촉직	송대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문위원
	양현봉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위원
	이 영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이원희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이윤재	송실대	교수
	황병홍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손광희	(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임원

(2016년 2월말 기준)

직위	직무	성명
이사장	중진공을 대표하고 중진공의 업무 총괄	임채운
감사	중진공의 업무 및 회계 감사	이영애
부이사장 겸 기획본부장	이사장 보좌, 기획업무 총괄 예산편성, 기획조정, 경영전략, 인재경영 등과 관련된 업무	임득문
경영관리본부장	자금 관리·운영, 윤리경영, 경영평가, 정보보안 등 업무	조내권
금융본부장	진단, 융자, 리스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류봉걸
글로벌마케팅본부장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마케팅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이한철
인력기술본부장	연수, 성과보상기금, 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	정진수
기업지원본부장	지역분·지부 운영, 사업집행 관리·조정 및 평가 업무	심현석
비상임이사	중진공 경영 의사결정 참여, 경영활동 감시 및 자문 등의 업무	오석송
		김동만
		한무경
		허미연
		이춘우
		정인태
		조영삼
최우영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 2016년 5월
 기획 및 편집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실
 발행인 : 임채운
 발행처 : 중소기업진흥공단